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훈민정음 해례의 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시각표현 실험

2009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李 錦 周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志炫

훈민정음 해례의 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시각표현 실험

The Visual Expression Experi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Korean script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李 錦 周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志炫

훈민정음 해례의 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시각표현 실험

The Visual Expression Experi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Korean script

위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미디어디자인學科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專攻

李 錦 周

李錦周의 美術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국 문 초 록

인류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언어가 쓰인다. 전 세계에서는 많은 언어가 쓰이고 있고, 그 중 인구 비례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로는 영어, 한자어 등이 쓰이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한글이 세계 여러 언어 석학들에 의해 새로이 자질문자로서의 우수함을 증명 받고 높이 평가되며 극찬받기 시작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정보의 처리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정보 전달의 수단인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그런 정보력의 언어 중 한글은 그 우수함을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훈민정음 해례>는 한글을 창제하게 된 제자원리를 풀이해 놓은 원문으로써 한글이 세상 만물의 이치인 음양오행과 그 이치가 맞음을 풀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류에서 창제되어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며, 그런 문자 창제에 대해 풀이해 놓은 책이 역사적 유물로 전해지는 것 또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디자인적 종합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이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디자인을 함에 있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은 늘 항상 시대를 불문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그에 <훈민정음>의 문자 디자인은 모든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평등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디자인된 세계 최고의 문자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디자인적 가치를 갖으며, 현재 외국의 여러 석학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 할 것이 아니라, 한글의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좀 더 한글에 대한 관심이 자국민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한글에 대해 자국 언어임에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훈민정음>의 그 기초가 되는 조형적 제자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원문의

내용 중 여러 제자원리들을 활용하여 한글에 대한 다양한 실험방법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본 작품 실험에서는 이러한 한글의 우수함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실험 방안으로 한글의 글꼴이나, 글자체 등의 시각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좀 더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실험방향의 대안으로 <훈민정음 해례>에서 밝힌 한글 창제 원리인 소리의 근본 오행과 소리의 맑고 흐림, 소리의 여리고 썸, 소리의 첫·가운데·끝소리의 조화와 형태, 그리고 소리의 느리고 빠름에 대한 한글 풀이를 살펴보고 이런 여러 원리들을 활용하여 컬러, 형태, 질감의 디자인적 기본 요소들로 한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으로써 실험 작품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자랑스러운 우리 말글인 한글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 스스로 높아질 때 한글의 말글살이가 윤택해지며 세계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주체로써의 우리 언어인 한글이 그 우수함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다 많은 분야에서의 한글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요구 될 때이나,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현 시대에는 더욱 다양한 디자인 문화로써의 한글을 활용한 시각표현 실험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연구배경 및 의의	1
II. 훈민정음 및 창제원리	3
III. 창제원리를 통한 실험 요소	13
1. 소리의 근본 오행	14
2. 소리의 맑고 흐림	16
3. 소리의 여리고 셈	17
4. 소리의 느리고 빠름	19
5. 소리의 첫, 가운데, 끝소리 어울림	20
IV. 훈민정음 해례에 따른 시각표현 실험	23
1. 작업방법	23
2. 표현 분류	23
1) 형태로 표현	23
2) 컬러로 표현	25
3) 질감으로 표현	27
3. 실험	28
1) 실험1) 시 ‘서시’의 형태 변화	29
2) 실험2) 시 ‘귀천’의 질감 변화	35
3) 실험3) 시 ‘슬픔’의 컬러 변화	41
4) 실험4) 소리의속도와 음량 변화	46
5) 실험5) 기본 형태소의 어울림 변화	47

V. 결론	50
참고문헌	51
ABSTRACT	53

표 목차

<표 1> 한글 자음 체계 분류	10
<표 2> 천지인의 기본구성	11
<표 3> 기본소릿자의 음양오행	16
<표 4> 소리의 맑고, 탁함 분류	17
<표 5 > 기본소릿자의 세기 변화	18
<표 6> 말소리의 성조 구분	20
<표 7 > 음양의 원리	22
<표 8> 기본소릿자의 형태 풀이	25
<표 9 > 기본소릿자의 음양오행	25
<표 10> 컬러의 음양오행	26
<표 11> 기본소릿자의 컬러	26
<표 12> 초성, 중성, 종성의 변화 요소	27
<표 13> 기본소릿자의 소리변화	27

그림 목차

<그림 1> 소리의 분류 체계	6
<그림 2> ‘ㄱ’의 가획의 원리	24
<그림3> ‘ㄱ’자를 형태로 표현	29
<그림4> ‘ㅋ’자를 형태로 표현	29
<그림5> ‘ㆁ’자를 형태로 표현	30
<그림6> 한글 모든 날자의 형태 변화	30
<그림7> 한글 날자 배열	31
<그림8> 한글 ‘서시’를 형태로 표현	31
<그림9> 한글 ‘죽’을 형태로 표현	32
<그림10> ‘죽는 날까지’의 형태변화	33
<그림11> ‘한 점 부끄럼이’의 형태변화	33
<그림12> ‘괴로워했다’의 형태변화	33
<그림13> 시 ‘서시’를 형태로 표현	34
<그림14> ‘ㄱ’자를 질감으로 표현	35
<그림15> ‘ㅋ’자를 질감으로 표현	35
<그림16> ‘ㆁ’자를 질감으로 표현	35
<그림17> 한글 모든 날자의 형태 표현	36
<그림18> 한글 날자 배열	36
<그림19> 한글 ‘귀천’을 질감으로 표현	37
<그림20> ‘나 하늘로’를 질감으로 표현	38
<그림21> ‘돌아가리라’를 질감으로 표현	39
<그림22> ‘기슭에서’를 질감으로 표현	39
<그림23> 시 ‘귀천’을 질감으로 표현	40
<그림24> ‘ㄱ’자의 컬러로 변화	41
<그림25> ‘ㅋ’자의 컬러로 변화	42
<그림26> ‘ㆁ’자의 컬러로 변화	42

<그림28> 한글 모든 낱자의 컬러 표현	43
<그림29> ‘ㅏ’, ‘ㅑ’의 컬러표현	43
<그림30> ‘슬픔’의 컬러표현	44
<그림31> 시 ‘슬픔’을 컬러로 표현	45
<그림32> ‘빨리 빨리’의 속도 표현	46
<그림33> ‘느릿 느릿’의 속도 표현	46
<그림34> ‘아름다운 마무리’를 표현	48

I. 연구배경 및 의의

한글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문자임에 틀림없다. 유네스코에서 지난 1989년에 ‘세종대왕상’을 만들었는데, 인류의 문명률을 낮춘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그 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언어에서 한글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예로 그 후 1997년 10월 1일에는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세계최고의 언어 연구 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대학교에서는 세계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합리성, 독창성, 과학성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순위를 매겨 놓았었는데 자랑스럽게도 한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한글, 한글은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서 세계가 인정한 문자이다. 이런 한글을 활용한 예로 국내에서도 일찍이 한글의 자모를 해체해서 군상을 그렸던 이응로 화백도 있고, 글귀를 판화로 새겨 작품화한 이철수도 유명하다. 또한 얼마 전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이 한글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패턴을 이용하여 본인의 의상 디자인에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글 패션의 큰 반향을 몰고 왔었다. 패션 디자이너인 그가 주목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우리글 한글을 일반 상품과 패션디자인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상품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린 것으로, 우리 문화를 제품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글’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활동이 점점 더 다양하고 많아질수록 자질 문자인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더욱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국외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의 전시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한글에 대한 좀 더 활발한 시각적 개발의 활성화가 인문, 공학, 예술 등 각계각층의 분야로 확산될 때 한글의 다양한 미를 표현하는 실험적 시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의 실험적 접근과 표현이 조금씩 그 활기를 더하고, 실천되어지고 있으므로 시각적 충동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현대인에게 한글의 정형화된 변화의 시도 보다는 매우 다양한 시각적 개발과 변화가 적극 시도 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각의 무한한 확장을 열어둘 때 한글의 다양한 모습들이 표현될 수 있다.

한글은 언어이고 우리가 낳 때부터 쓰고 익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네 스스로 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긴 힘들지만,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여 새로운 흥미를 갖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분명 한글은 그 자체로써도 창제 원리에 있어 모든 만물의 디자인적 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근거로 하여도 실험적이고 흥미 있는 작업들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네 글자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실험적인 작업을 통하여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Ⅱ. 훈민정음 및 창제원리

1446년 이조의 4대왕인 세종은 당시의 말을 올바르게 적어낼 글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특히 쓰기 어려운 한자로 일반 백성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그는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과 함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글자와 그 표현 원리를 완성한 것이다.¹⁾ 라고 훈민정음 창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은 정인지(1396 - 1478), 성삼문(1418 - 1456), 신숙주(1417 - 1475), 박팽년(1417 - 1456), 이개(1417 - 1456), 강희안(1417 - 1464), 최항(1409 - 1474) 등으로 이중 <훈민정음> 뒤편에도 붙어있는 ‘정인지서문’을 쓴 정인지는 원로이고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주축이 된 학자는 성삼문, 신숙주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1397 - 1450)이 세종25년(1443)에 직접 만들었으며, 세종28년(1446)에 반포하였다.

창제 당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책으로 ‘훈민정음’이라는 우리글을 만든 원리와 사용 방법을 설명해 놓은 원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1910년대에 한글학자인 주시경(周時經)이 우리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한글’이라고 다시 이름 지었으며, 한글의 뜻은 고유어 ‘한’에서 비롯되는 ‘하나’, ‘크다’, ‘바르다’등을 뜻하는 우리말로 현대에는 이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훈민정음>은 예의편(例義篇)· 해례편· 정인지서문(鄭麟趾序文)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²⁾ 목판본 1책 전권 33장으로 나누어진 원문으

1) 김진평, 『고 김진평 교수 추모 논문집』, 한글조형연구, 1993, p67

2) <http://enc.daum.net/dic100/>

예의편은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와 새 글자의 음가(音價) 및 운용법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7가지로 볼 수 있다. ① 훈민정음 창제 취지를 밝힌 세종의 서문, ② 초성 17자(ㄱ, ㅋ, ㆁ, ㄷ, ㅌ, ㄴ, ㄹ 등)에 대한 설명, ③ 중성 11자(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에 관한 설명, ④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규정, ⑤ 순경음(唇輕音)과 병서에 관한 규정, ⑥ 초성과 중성의 결합관계, ⑦ 평성·거성·상성·입성의 성조 표기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해례편

로써 그 원본의 구성을 보면 총 33장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훈민정음 본문을 4장 7면으로 하고 면마다 7행 11자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부는 훈민정음해례로 26장 51면 3행으로 면마다 8행 13자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3부에는 정인지의 서문을 3장 6면에 걸쳐 한글에 대해 풀이를 해놓았다.

내용을 보면 예의편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새 글자인 ‘훈민정음’에 대한 소리의 원리와 그 운용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례편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문자를 표시하는 음운체계에 관한 내용 등인 제자해·초성해·중성해·중성해·합자해·용자례 등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소리를 표현하여 나타나는 표음 문자 가운데 음소 문자로 초성 17자³⁾, 중성 11자⁴⁾로 모두 낱자 28글자인데, 기본자 8개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나머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기본자 8자의 구성은 초성(ㄱ, ㄴ, ㄷ, ㄹ, ㅇ)이 5개이고 중성(·, ㅡ, ㅣ)이 3개이다.

창제 당시 초성, 중성 28자와 성조를 표시하는 기호인 방점이 따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반시옷), ○(옛이응), ㄷ(여린히읇), ·(홀소리(아래아)) 네 글자와 성조 기호인 방점이 사라지고 24글자만이 쓰이는데 닿소리(자음) 14자와 홀소리(모음) 10자로 이루어져 있다.

한글의 문자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회화 문자(그림문자)와 표음 문자, 표의

은 새 글자의 제자원리와 그 음가 및 운용법, 문자가 표시하는 음운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자해·초성해·중성해·중성해·합자해·용자례 등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3) <http://urimal.cs.pusan.ac.kr>

초성 17자 :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먼저 오음(五音)의 기본글자를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하여 가획글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발음기관의 모양과는 관계없이 다른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체글자라 한다.

초성 17자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ㄱ,ㅋ,ㅇ/ ㄷ,ㅌ,ㄴ/ ㅂ,ㅃ,ㅍ,ㅁ/ ㅈ,ㅉ,ㅊ,ㅅ/ ㅎ,ㅎ,ㅇ/ ㄹ,△이다.

4) <http://urimal.cs.pusan.ac.kr>

중성 11자 : 천(天), 지(地), 인(人)의 삼재(三才)를 본떠서 기본 글자를 만들고, 이것을 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모음 11자의 순서대로 나타내면 ·,ㅡ,ㅣ/ ㅏ,ㅑ,ㅓ,ㅕ/ ㅗ,ㅛ,ㅜ,ㅠ,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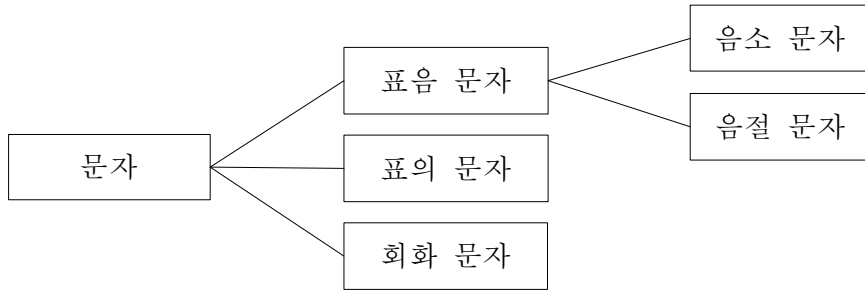
문자로 나누어진다. 그 중 대표적으로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가 쓰인다.

표의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글자로서 대표적으로 한자가 표의 문자에 해당 되며, 기본 단위나 형태소 하나가 수십, 수만 가지나 된다. 이에 비해 표음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일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구분되는 기본 단위의 소리가 몇 십 개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얼마든지 조합될 수 있다. 표의 문자도 장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 시대에 글자의 수많은 양을 습득하고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표음 문자는 또 둘로 나뉘는데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로 구분된다. 음절 문자는 ‘훈’이라는 글자의 예를 들면, ‘훈’이라는 음절은 ‘ㅎ’과 모음 ‘ㅓ’와 자음 ‘ㄴ’의 세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훈’같은 음절 전체인 하나의 글자가 음절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음소 문자는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언어 체계 내에서 음소는 수십 개 정도 이지만, 음절의 수는 수백 수천 개나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절 문자가 음소 문자에 비해 글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어가 음절 문자의 그 대표적인 문자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에서 한글은 가장 발달된 체계적인 음소 문자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글은 음소 문자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각각의 음소는 일정한 내적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ㄱ’이나 ‘ㄱ’은 독립적인 하나의 음소라고만 볼 수 없고, ‘ㄱ’에 추가된 하나의 획, 그리고 두 개의 ‘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글이 지닌 이러한 체계성을 중시하여, 한글을 단순히 음소 문자로 보지 않고 자질 문자(featural writing system)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자질 문자는 인간이 개발한 문자 체계들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형태이다. 이러한 특성의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⁵⁾.

5) <http://blog.naver.com/nobopark>



<그림 1> 소리의 분류 체계

미국의 역사학자 레드야드(G..K.Ledyard)는 그의 저서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The Origin, background and Early History of the Korean Alphabet』에서 “한글의 가장 특이하고 흥미로운 요소는 시각적인 모양과 시각적인 기능 사이에 치밀한 대응이 나타나 있는 점이다. 닿소리 글자의 모양은 홀소리 글자의 모양과 아예 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두 큰 갈래 안에서조차 세종임금은 낱글자의 모양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여러 관계가 드러나도록 했다. 닿소리 글자에서는 글자 모양이 닿소리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고, 홀소리의 글자에서는 뒤홀소리와 가운데 홀소리 부류가 조직적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 이처럼 멋과 뜻을 갖춘 합리적인 낱소리글자는 세상에 다시없다. 모양과 기능의 관계라는 생각과 그 생각을 구현한 방식에 대해서는 참으로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글자의 오래고 다양 다기한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그와 같은 것은 없다. 소리 종류를 따라 글자모양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족히 그렇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그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발음 기관을 본떠 꾸민 것이라니...이것은 정녕 언어학적인 호사의 극치다! 조선의 음운학자들은 참으로 숨씨가 많았거니와, 창조적인 상상력도 모자람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예찬하고 있다.

한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자 자체로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았으며, 문자의 생성, 변천 과정에 있어서 한글은 영자, 일본자, 한자 등과 전혀 다른 독특한 원리와 기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음소 문자인 한글은 날

개인 자모음의 일정한 조합방식으로 현재 사용되는 24개 각각의 음절을 표시할 수 있는 구성문자는 약 2,000자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세계의 모든 문자는 거의 오랜 세월 속에 조금씩 변화하며 오늘날의 문자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친히 그 언문 28자를 만들었다고 하며 그 문자의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으로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한글은 탄생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이며, 세종 즉위부터 제위기간 동안 한글을 창제하였다고 해도 32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한나라의 문자를 창제하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몇 년 전에는 세계 언어학자들이 프랑스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학술 회의가 열렸었는데, 아쉽게도 한국의 학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는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자는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문자 우리말글인 한글이 세계적으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글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영국의 문자 학자인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은 그의 저서 『문자 체계 Writing Systems』 “한글이 궁극적으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생각될 수 있는 최고의 문자인지는 몰라도, 인류의 지적 업적 중에서도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한글이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독특하지만 기본 글에 획을 더하여 음성학적으로 동일계열의 글자를 파생해내는 방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라고 말한바 있다. 또한 ‘라이샤워(E.O Reischauer)’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이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미국의 유명한 생리학자이자 풀리처상 수상자인 ‘제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한글에 대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체계이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기호 배합 등 효율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다. 또한 한글이 간결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글에 대한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의 높은 평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한글은 자모 28자가 제각각 만들어지지 않고 몇 개의 기본자를 만든 후에 나머지 자모를 이 기본자에서 파생시켜나가는 이원적 체계로 만든 것이다. 그 분류를 보면 자음 17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그 기본자 다섯 가지는 ‘ㄱ, ㄴ, ㄷ, ㅅ, ㅇ’으로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나머지 자음을 만들었다. 이는 세종대왕의 한글을 창제함에 있어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음을 보여 준다. 또한 모음 11자도 그 기본자를 만든 후 나머지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그 기본자는 천(天), 지(地), 인(人)으로 이 세자를 본떠서 만든 것이 ‘·, ㅡ, ㅣ’이다. 이와 같이 한글의 제자원리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 할 수 있다.

한글은 발성 기관의 모양을 본 따서 글자를 만들어 그 글자가 소리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자형의 원리를 가지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중 ‘제자해’에 글자에 대해 자세히 원리가 설명되어 있다.

사람의 말소리는 입에서 난다. 공기가 목구멍으로부터 입 안을 지나 입술 사이로 빠져 나갈 때 소리가 난다.⁶⁾ 이런 소리의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우선 기본자를 만들었는데, 그 기본자를 소리가 나는 발성기관을 상형한 것이다.

훈민정음은 가장 안쪽에 있는 목구멍에서부터 가장 바깥쪽의 입술까지 발음기관의 모습 [ㅇ, ㅅ, ㅁ]이나 혀의 움직임 [ㄱ, ㄴ]을 본뜬 상형 문자이다. 특히 소리마다 그 소리가 나는 발음 기관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였고, 소리를 낼 때 움직이는 혀의 모습을 정확히 나타냈다.⁷⁾

기본자 다섯 자 ‘ㄱ, ㄴ, ㄷ, ㅅ, ㅇ’ 중 ‘ㄱ(기역)’은 소리를 낼 때 혀의 뒤쪽이 어금니에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때 혀가 어금니에 닿으며 모양이 굽어진다. 사람이 ‘ㄱ’ 발음을 소리 낼 때 그 혀의 옆모양을 본 떠 만든 글자이다. 이 글자의 소리와 같은 입 모양 소리가 있는데 ‘ㅋ’, ‘ㄱ’가 그것이다. ‘ㄱ’보다 소리의 세기가 좀 더 강해지는데 목과 입 전체에 힘이 세지는 센소리가 나서 그에 따라 획을 더 추가한 방식이다.

6) 김명호, 『한글을 만든 원리』, 학고재, 2005, p64

7) 한글글꼴 연구회, 『가나다라1』, 2006, p56

‘ㄴ(니은)’은 소리를 낼 때 혀의 앞쪽이 구부러지면서 윗잇몸에 혀끝이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때 혀의 옆모양을 본 때 만든 글자이다. ‘ㄴ’도 ‘ㄱ’과 같이 같은 입 모양으로 파생되는 소리글자가 있는데, ‘ㄷ(디귤)’, ‘ㅌ(티을)’, ‘ㄸ(쌍디귤)’ 글자들이다. ‘ㄱ’의 이치와 같이 ‘ㄴ’은 부드러운 소리이고, ‘ㄷ’은 그보다 센소리, ‘ㄸ’보다 더 센소리는 ‘ㅌ’, ‘ㄸ’ 순이다. 또한 ‘ㄴ’에서 파생되어 나온 글자가 ‘ㄹ’ 글자인데, 이 소리는 ‘ㄴ’과 비슷한 자리에 혀가 닿되 그 소리를 내는 혀끝이 많이 구부러지거나 떨게 되어 이는 반 혀소리자로 예외 이다. ‘ㄹ’자도 소리 낼 때 혀의 옆모습을 본뻗음을 알 수 있다.

‘ㅁ(미음)’은 소리를 낼 때 두 입술 아래위가 붙었다 떨어져 발음되는 형상을 본 때 만든 글자이다. 이 소리를 낼 때와 입술 모양이 역시 같고 그 모양을 하고 소리의 세기만 달라지는 파생글자는 ‘ㅂ(비읍)’, ‘ㅍ(피읍)’, ‘ㅃ(쌍비읍)’글자의 소리 들이다. ‘ㅁ(므-발음소리)’는 ‘ㅂ(브-발음소리)’ 보다 부드럽고, ‘ㅂ’는 ‘ㅁ’보다 발음의 세기가 더 세다. 여기서 ‘ㅍ’과 ‘ㅃ’가 파생되어 나온 이치가 위의 ‘ㄱ’이나 ‘ㄴ’등의 파생 글자를 설명하는 이치와 같다. 이 글자들은 모두 입술소리라고 부른다.

‘ㅅ(시옷)’의 글자를 또한 살펴보면 이 글자를 소리 낼 때는 혀끝과 윗니 사이를 좁히고 이 사이로 바람이 스쳐 내는 모양새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의 모양을 본 때 만든 것이다. 이 ‘ㅅ’글자보다 된 소리를 내는 글자로는 ‘ㅆ(쌍시옷)’이 있다. 또한 이 글자의 소리보다 센소리가 나는 글자는 ‘ㅈ(지읏)’이 있고, 이 소리를 되게 내면 ‘ㅉ(쌍지읏)’이 된다. 이런 소리들을 잇소리라고 한다. ‘ㄴ’과 마찬가지로 ‘ㅅ’도 예외적인 소리를 파생시키는데 그 글자가 ‘ㅊ(반시읏)’이다. 이 소리는 ‘ㅅ’과 같은 위치에서 혀끝을 울려 내는 소리로 반잇소리이다.

‘ㅇ(이응)’을 보면 목청이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목구멍의 동그란 모양을 본 때 만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목청에서 나되 그 소리의 된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로는 ‘ㅎ(된이응)’이 된다. 이 소리는 말할 때 ‘ㅅ’받침으로 적히는 소리와 같고 이 소리보다 더 거센 목청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ㅎ(히응)’을 만든 것이다. 또 ‘ㅇ’보다 더 된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ㅇㅎ(쌍이응)’을 만들고, ‘ㅎ’보다 더 된소리를 만들기

위해선 ‘ㅙ(쌍히읇)’을 만든 것이다. ‘ㅇ’에서도 파생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ㅇ(옛이응)’이다.

<훈민정음>의 해례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음자 14개를 살펴보면 기본자 ‘ㄱ, ㄴ, ㄷ, ㅌ, ㄴ, ㅇ’의 다섯 닿소리인 자음에서 파생된 가획자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ㅎ’와 이체자 ‘ㄹ’들이 모두 서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창제원리를 살펴보았다.

<표 1> 한글 자음 체계 분류

분류	한글 자음 체계
기본자	ㄱ, ㄴ, ㄷ, ㅌ, ㅇ
가획자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ㅎ
이체자	ㄹ, ㅅ, ㅇ

한글은 닿소리와 홀소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글자가 표현되는데 홀소리는 위의 닿소리와 달리 다른 방식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홀소리 글자의 기본자 세자 ‘·(천), 一(지), 丨(인)’ 세 개의 모음에서도 나머지 모음을 만들어 냈다.

·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으니. 하늘이 ‘자’에서 열림인데.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一는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지도 얇지도 않으니. 땅이 ‘축’에서 열림인데.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丨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는 얇으니. 사람이 ‘인’에서 남인데. 그 모양이 서 있음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⁸⁾ 라고 <훈민정음>에서 가운뎃소리글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천), 一(지), 丨(인)’의 세 가지 홀소리 모음자로 나머지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살펴보면 ‘ㄱ’은 ‘·’과 같으나 입을 오므려서 소리를 내고 그 모양은 ‘·(천)’과 ‘一(지)’를 합쳐서 만든 것이다. 같은 원리로 ‘ㄴ’은 ‘·’과 같지만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으로써 그 모양도 ‘丨(인)’과 ‘·(천)’을 합쳐서 만들게 된 것이다. ‘ㄷ’은 ‘一’와 같으나 입을

8) 한글학회,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 한글학회, 1985, p8

오므려서 소리를 내고 그 모양은 역시 위와 같은 원리로 ‘一(지)’와 ‘·(천)’을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 ‘ㄱ’는 ‘一’와 같지만 입을 벌릴 때 나는 소리로 그 모양 또한 ‘丨(인)’과 ‘·(천)’을 합쳐서 만들게 된 것이다.

‘ㄱ’를 만들어 내려면 천(·)과 지(一)를 합치면 된다. ‘ㅏ’를 만들려면 인(丨)과 천(·)을 합치고 ㅓ는 지(一)와 천(·), ㅑ는 천(·)과 인(丨)을 가지고 합성해 낼 수 있다. 천지인을 이용하여 ‘ㄱ, ㅏ, ㅓ, ㅑ’를 만들고, 천지인에서 처음 나온 글자라 하여 이것들을 초출자(初出字)라고 불렀다. 초출자에 ‘·’를 추가 하여, ‘ㄲ, ㅑ, ㅓ, ㅕ’를 만들어 내었으므로 이것들은 재출자(再出字)라고 불렀다.⁹⁾

<표 2> 천지인의 기본구성

천지인 분류	기본 구성
기본자	·, 一, 丨
초출자	ㄱ, ㅏ, ㅓ, ㅑ
재출자	ㄲ, ㅑ, ㅓ, ㅕ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원리는 체계적이고 획 추가를 하며 파생적으로 더해가는 형식이다. 또한 한글은 모음조화의 음운 현상이 있는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천지인은 모음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성’ ‘음성’ ‘중립’ 등의 음성학적 특징을 반영한 문자 체계이다. 이러한 음성학적 특징은 세종대왕의 진리관과 일치한다. 만물의 이치에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즉불이(理卽不二), 즉 이치에는 둘이 아니므로 그 원리가 음성학에도 적용되어 나타난다는 믿음이다.¹⁰⁾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양성’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음성’은 땅을 뜻하며, ‘중립’은 인간을 뜻한다고 한다. 인간이 중간에서 하늘과 땅

9) 김영옥, 『한글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 루덴스, 2007, p224

10) 상계서, p225

사이를 연결하며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은 남, 여로 존재하듯 이 또한 ‘양성’과 ‘음성’의 조화를 이루는 이치라 하여 음양오행의 이치가 그에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루는 24자의 생성은 그 모두가 체계 속에서 파생되어 이루어 졌다고 한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발견에 근거하였다. 그 중 가장 빛나는 것이 음절을 3개로 분석한 것이었다. 소리를 초, 중, 종성으로 나누고 초성과 종성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한 것이다. 이것이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다. <훈민정음>은 예의편(例義篇)에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 라고 풀이되어 있다.

초성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 자모이고 중성은 한글 모음이다. 종성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엄청나게 복잡한 한자, 예를 들어 ‘거칠 추(麤)’와 같은 글자는 한 글자의 획수가 무려 33획이나 된다. 한글은 비교적 복잡한 ‘ㄸ’ ‘ㄹ’이라 하더라도 4획을 넘지 않는다. 게다가 한자는 글자 수가 너무나 많다. 천자문을 배운 다음에 그것의 열배인 10,000자를 익혀도 모르는 글자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글은 고작해야 24자이다. 세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28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4자로도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기록할 수 있다. 한글은 한국어의 발음뿐만 아니라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 짐승 소리 등등 사람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24자로도 충분히 적을 수가 있다.¹¹⁾ 라고 소리글자인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종의 한자의 성모와 운모에서 운모의 음절 분석을 통해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을 삼등분하고 나누어진 소리를 각각 첫소리(초성), 가운데소리(중성), 끝소리(종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세종대왕은 세 가지 소리를 관찰해 보니 첫소리와 끝소리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한글의 과학적 대 발견이었다.

11) 김영옥, 전계서, p227

Ⅲ. 창제 원리를 통한 실험 요소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오행뿐이다. 곤괘와 복괘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멎고 한 뒤가 음양이 된다. 무릇 어떤 생물이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은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랴?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건마는 생각건대 사람들이 살피지 않을 뿐이다. 이제 정음을 만든 것도 처음부터 지혜로써 경영하고 힘써 찾아 낸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이치를 다하였을 뿐이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닌즉 어찌 하늘과 땅과 귀신으로 더불어 그 운용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¹²⁾ 라고 <훈민정음 해례> 원문 첫머리글에서 한글을 만들게 된 창제 원리에 대해 풀이해 놓았다. 훈민정음 머리글에서 살펴보았듯이 훈민정음 창제의 큰 원리는 음양오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원리를 기본으로 삼아 사람의 말소리도 단지 음양오행의 이치를 살피어 한글 창제의 기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를 풀이해 보면, 소리에 대한 몇 가지 큰 중심원리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한글에 대해 풀이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글을 창제한 원리에 대하여 그 근본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훈민정음은 모든 소리를 음성과학적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고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하여 그 글자의 제자원리를 하늘, 땅, 사람 과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의 형상에 그 기초를 두어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형태소의 조합과 분석을 통한 결합 방식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이다.

따라서 그 제자원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훈민정음 해례>에서 알아보고 연구자의 작품 실험을 위해 디자인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 원리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2) 한글학회, 전게서, p5

1. 소리의 근본 오행

대저 사람의 말소리가 있는 것도 그 근본은 오행¹³⁾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네 철에 짝지어도 어그러지지 않으며, 이것을 오음¹⁴⁾에 맞추어도 어긋나지 않는다.¹⁵⁾ 라고 말소리의 근본을 오행의 네 철(봄, 여름, 가을, 겨울)과 전통 음악에서의 5음률(궁·상·각·치·우)에서 그 이치를 찾으려 하였다.

목구멍은 깊숙하고 물기가 있으니 ‘물’에 해당된다. 소리가 비고 거침없음은 물이 투명하고 밝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 철로는 ‘겨울’이요, 음악으로는 ‘우’다.¹⁶⁾ 라고 풀이 되어 있다. 여기서 목구멍 소릿자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 뜬 자음 ‘ㅇ’을 말하며, 그 파생자인 ‘ㅎ’도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ㅇ’은 차갑고, 맑고 투명하고, 밝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13) <http://ko.wikipedia.org/wiki/>,

오행 : 역학(易學)에서 우주 만물의 걸음걸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행을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해보면 다섯 오(五)자에 다닐 행(行)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닐 행자는 걸음걸이라는 뜻이다. 우주 만물의 다섯 가지 걸음걸이, 그것이 바로 오행의 의미이다. 그런데 걸음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만물이 지나가는 방향, 만물의 상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배가 고파지기도 하고 즐립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배가 고프는 길을 걷고, 즐린 길을 걷고, 행복한 길을 걷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은 어떠한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변화의 길에서 원칙을 찾아냈고, 그것을 오행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오행의 구성은 다섯가지 요소와 두 가지 상관관계로 이루어진다. 다섯 가지 요소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가 바로 그것이다. 두 가지 상관관계는 바로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이다.

14) 한국전통음악에서 한 옥타브 안에 쓰인 기본적인 5음률로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를 말한다. 7성음계에서 변치(變徵)와 변궁(變宮)이 빠진 것이다. 오성(五聲), 오성음계(五聲音階)라고도 한다.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주체적 수용을 하여 한국식 ‘궁·상·각·치·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서양음악의 계이름 ‘도·레·미·솔·라’에 해당한다. 이웃하는 음 간격에 반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가 더 많이 사용된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clid=3&dir_id=30610&eid=kLyfKo9l+7as1sOBxfQzfajgtbPEN8/P&qb=scMgu/MgsKIguq/EoSDEoSC/7CC6r7HD&pid=fgbsNwoi5TNssvAc4Zsss--083564&sid=STFCAvUEMUkAACrrhog

15) 한글학회, 전계서, p6

16) 상계서, p6

<훈민정음 해례>에서 풀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악에 해당하는 ‘우’는 서양음계의 ‘라’에 해당되는데 ‘궁, 상, 각, 치, 우’를 서양음계로는 ‘미, 솔, 도, 레, 라’와 같다. 한글 자음의 기본자에는 동일한 순서와 대입되는 것으로 ‘ㄱ, ㄴ, ㄹ, ㅅ, ㅇ’과 같다. 기본자인 목구멍소리자 외 나머지 4개(ㄴ, ㄹ, ㅅ, ㅇ)의 기본 소리자의 음양오행에 대해서도 <훈민정음 해례>에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어금니는 어긋지고 기니 ‘나무’에 해당된다. 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실함은. 마치 나무가 물에서 났으되 모양이 있는 것과 같다. 첩로는 ‘봄’이요. 음악으로는 ‘각’이라고 어금닛 소리자인 ‘ㄱ’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문의 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행으로는 ‘물’을 나타내고, 네 첩 중에는 ‘봄’이고, 음악으로는 ‘각’인 서양음계의 ‘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나머지 자음에 대해서도 풀이하고 있는데, ‘ㄴ’자의 풀이를 살펴보면 혀소리자으로써 혀는 날카로우며 움직인다 하여 ‘불’에 해당된다 하고, 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이 불이 굴러서 퍼지며 날뛰는 듯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역시 같은 원리로 네 첩 중에는 ‘여름’이요. 음악으로는 ‘치’라고 한다. ‘ㅅ’자에 대한 풀이를 살펴보면 잇 소리자이므로 이는 단단하며 끊으니 ‘쇠’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소리에 대한 풀이에는 소리가 부스러지며 걸리는 것은 쇠가 부스러지고 불려져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고 풀이하고 있는데, 네 첩 중에는 ‘가을’을 뜻하며, 음악으로는 ‘상’인데 서양 음계로는 ‘레’에 해당 된다. 나머지 기본자인 ‘ㄹ’에 대한 오행에 대한 이치로는 입술 소리자로 입술이 모나며 어울리니 ‘흙’에 해당된다고 하며, ‘ㅅ’의 소리가 머금고 넓음에 대해서는 마치 땅이 만물을 품어서 간직하고 넓음과 큼을 뜻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네 첩로는 그 중 ‘늦은 여름’을 가리킨다 하며, 음악으로는 ‘궁’으로 서양 음계에 ‘도’가 이와 같다고 풀이를 자세히 하고 있다.

또한 풀이 중에 ‘그러나 물은 만물을 나게 하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어 내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오행 가운데 ‘물’과 ‘불’을 큰 것으로 삼는다. 예서 알 수 있듯이 기본 소리자 5자(ㄱ, ㄴ, ㄹ, ㅅ, ㅇ) 중에서도 그 근원 작용이 있다하며 원인과 결과의 이치인 오행에 대해

풀이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랐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 '모양을 본뻘었되 글자는 옛 전자를 닮았고. 소리를 따랐으되 음은 일곱 가락에 들어맞고. 삼극의 뜻과 이기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스물여덟 자로써 굴러 바뀔이 무궁하고. 간단하고도 요령이 있으며. 정밀하고도 통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을 통해 다른 소릿자와 그 음양오행의 여러 종류를 풀이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본소릿자의 음양오행

소릿자	기본자음	오행	철	음악	서양음계
목구멍 소릿자	ㅇ	물(근원)	겨울	우	라
어금닛 소릿자	ㄱ	나무	봄	각	미
혓 소릿자	ㄴ	불(작용)	여름	치	솔
잇 소릿자	ㅅ	쇠	가을	상	레
입술 소릿자	ㅁ	흙	늦은 여름	궁	도

2. 소리의 맑고 흐림

소리에는 또한 절로 맑고 흐림이 있으니. 요컨대 첫소리 날 때에 자세히 살필지라. 전청 소리는 ㄱ ㄷ ㅂ이며, ㅈ ㅊ ㅎ도 또한 전청 소리이다. ㅋ ㅌ ㅍ ㅊ ㅎ과 같은 것은 오음이 저마다 하나씩 차청이 된 것이다. 전탁의 소리엔 ㄱ ㄷ ㅂ. 그리고 ㅈ ㅊ이 있으며 또한 ㅎ이 있다. 전청을 나란히 쓰면 전탁이 되는데, 다만 ㅎ만은 ㅎ으로부터 나와 이는 단 전청과 같지 아니하다. ㅇ ㄴ ㅁ ㅇ과 ㄹ △은 그 소리가 맑지도 또 흐리지도 않다고 <훈민정음 해례>에 소리의 맑고 흐림이 있다고 풀이

해 놓았다. 맑고 흐림의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해서 말소리에 맑고 흐림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의 네 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전청’은 소리의 맑은 소리로 평음을 말하는 예사소리으로써 평음이다. 평음의 종류로는 ㄱ(아음), ㄷ(설음), ㅂ(순음), ㅈ, ㅊ(치음), ㅇ(후음)이 있다. ‘차청’은 ‘전청’보다 덜 맑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센소리이다. 또한 ‘전탁’은 된소리를 나타내며, ‘전탁’은 된소리, 농음이라고도 한다. ‘불청불탁’은 소리의 울림소리를 뜻한다.

<훈민정음 해례> 원문에는 있으나 쓰이지 않는 글자로는 ‘전청’은 ‘ㅇ’이 있고, ‘전탁’에는 ‘ㆁ’이 있으며, ‘불청불탁’으로는 ‘ㅇ, ㆁ’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 말소리이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소리의 맑고, 탁함 분류

말소리	소리의 분류
ㄱ ㄴ ㄷ ㅈ ㅊ ㅇ	전청
ㅋ ㅌ ㅍ ㅊ ㅎ	차청
ㄱㅅ ㄷㅌ ㅂㅍ ㅈㅊ ㅉ ㅊㅌ ㆁ	전탁
ㅇ ㄴㅇ ㄹㅇ ㅇ ㄹㅇ ㅅ	불청불탁

3. 소리의 여리고 썸

자음의 형태소는 기본 ㄱ ㄴ ㄹ ㅇ ㅅ 의 모양새인데 이는 인간의 발성기관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인간의 말소리를 음양오행의 일치에 근본을 둔 원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볼 때 닿소리(초성)는 먼저 소리 나는 자리에 따라 어금니, 입술, 이, 목구멍 등 5음으로 나누어 상형원

리를 적용하여 그 기본글자 하나씩을 만들고 각 소리에 속한 소리들은 이 다섯 기본글자를 바탕으로 획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기본글자를 토대로 하여 같은자리에서 나는 소리를 적은 글자는 모두 비슷한 꼴로 만들어 내었는데 그 원칙은 기본글자의 소리보다 내는 힘이 세어지는 차례에 따라 획을 하나씩 더 하는 것이다.¹⁷⁾

오직 어금닛소리의 ㅇ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고 소리 기운이 코로 나오나 그 소리는 ○소리와 비슷하므로, 운서에서 ㅇ과 ㅇ은 많이 서로 섞이어 쓰인다. 이제 또한 목구멍에서 모양을 취하되 어금닛소리의 글자 만드는 시초로 삼지 않는다. 대개 목구멍은 ‘물’에 속하고 어금니는 ‘나무’에 속하는데, ㅇ은 비록 어금니에 속해 있으나 ○과 서로 비슷함은,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와서 부드럽고 여리어 아직 물 기운이 많음과 같다. ㄱ은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요, ㅋ은 나무가 성히 자란 것이며, ㆁ은 나무가 나이 들어 썩썩함이니, 그러므로 이들에 이르러서는 모두 어금니에서 본떴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금닛 소릿자 ㄱ, ㅋ, ㆁ의 기본자에서 획이 추가됨에 따라 소리의 세짐이 변화함을 나무의 여린 싹이 자라 큰 나무가 될 때까지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듯이 나머지 기본 자음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도 획이 추가됨에 따라 그 소리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 기본소릿자의 세기 변화

소릿자	기본자	소리 세기 변화
어금닛 소릿자	ㄱ	ㅋ → ㆁ
혓 소릿자	ㄴ	ㄸ → ㅌ → ㄹ
입술 소릿자	ㅁ	ㅂ → ㅃ → ㅄ
잇 소릿자	ㅅ	ㅆ → ㅈ → ㅊ
목구멍 소릿자	ㅇ	ㅎ

17)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한글의 새로운 시도. mind 4.0』, 안그래픽스, p14

4. 소리의 느리고 빠름

소리에는 느리고 빠름의 차이가 있으니, 그러므로 평성. 상성. 거성은 그 끝소리가 입성의 빠름과 같지 않다. 불청불탁의 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아니하므로, 끝소리에 쓰이면 평성. 상성. 거성에 맞고, 전청. 차청. 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끝소리에 쓰이면 입성에 알맞다. 그러므로 ㅅ ㄴ ㄹ ㅇ ㄷ ㅌ의 여섯 글자는 평성과 상성과 거성의 끝소리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끝소리가 된다. 오음의 느리고 빠름이 또한 각각 절로 짝이 되니, 어금닛소리의 ㅅ과 ㄱ이 짝이 되는데, ㅅ을 재빨리 내면 바뀌어서 ㄱ이 되어서 빠르고, ㄱ을 천천히 내면 바뀌어서 ㅅ이 되어 느림과 같다고 소리의 느리고 빠름에 대해 풀이하였다.

우리말의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은: ‘활’은 ‘활’로서 그 소리가 평성이요. ‘돌’은 ‘돌’로서 그 소리가 상성이요. ‘·갈’은 ‘칼’로서 그 소리가 거성이요. ‘·분’은 ‘붓’으로서 그 소리가 입성이 되는 따위와 같다. 무릇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 되고, 두 점을 더하면 상성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 되는데, 한자의 입성은 거성과 비슷하나. 우리말의 입성은 일정함이 없어서, 어떤 것은 평성과 비슷하니, ‘긴’이 ‘기둥’이 되고 ‘넙’이 ‘옆구리’가 되는 것과 같으며, 어떤 것은 상성과 비슷하니, ‘·난’은 ‘·날알’이 되고, ‘·깁’은 ‘·비단’이 되는 것과 같으며, 어떤 것은 거성과 비슷하니, ‘·뭇’은 ‘·못’이 되고 ‘·입’은 ‘·입’이 되는 따위와 같은데, 그 점을 찍는 법은 평성 상성 거성과 같다. 또한 평성은 평안하고 부드러우니 봄이라. 온갖 생물이 펴고 편하며, 상성은 부드럽고 들리니 여름이라. 온갖 생물이 점점 성해지고, 거성은 들리고 씩씩하니 가을이라. 온갖 생물이 열매가 익음이며, 입성은 빠르고 막히니 겨울이라. 온갖 생물이 닫히고 갈무리됨이라고 <훈민정음 해례>에 설명되어 있다.

상성(上聲)은 평성의 낮은 음에서 시작하여 상성의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말하는데, 평안한 저조에서 시작해 고조로 높이 올라가는 소리를 말한다. 거성(擧聲)은 높이 올린 웅장한 소리를 말하며, 입성(入

聲)은 끝소리를 촉박하게 끝맺는 소리를 말한다. 평성(平聲)은 낮은 음의 소리가 평안하고 온화하게 기복이 없이 나는 잔잔한 소리를 말한다.

거성과 입성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종성을 보면 알 수 있다. 거성의 종성은 개방성이고 입성의 종성은 폐쇄성이다. 개방종성은 종성의 여음을 한없이 길게 끌어갈 수 있는 음을 말하며, 그 종류는 모음 종성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ㅟ, ㅠ, ㅢ, ㅤ 등이 있고, 유성자음종성에는 ㄴ, ㄹ, ㅁ 이 있다. 폐쇄종성은 종성이 끝마무리됨과 동시에 완전히 봉쇄되는 음을 말한다. 종류에는 무성자음종성으로 ㄱ(ㄱ), ㄷ(ㄷ, ㅈ, ㅊ, ㅌ, ㅎ), ㅂ(ㅂ)가 있다.¹⁸⁾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말소리의 성조 구분

말소리	성조 구분	네 철
종성의 여음을 한없이 길게 끌 수 있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ㅟ, ㅠ, ㅢ, ㅤ	평성	봄
	상성	여름
	거성	가을
종성이 끝마무리됨과 동시에 완전히 봉쇄됨 ㄱ(ㄱ), ㄷ(ㄷ, ㅈ, ㅊ, ㅌ, ㅎ), ㅂ(ㅂ)	입성	겨울

5. 소리의 첫 · 가운데 · 끝소리 어울림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3개의 자모음이 서로 만나 어우러져 소리가 난다. 첫소리는 자음이 오고 가운데소리는 모음이 오는데, 끝소리도 또한 첫소리의 자음이 쓰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한글의 우수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중성부용초성’이라 한다.

18) 『가나다라1』, 한글글꼴 연구회, 2006, p24

초성은 모든 사물의 이치는 근본이 있다는 세종의 진리관이 잘 반영된 자음으로써 소리와 음악 등 천지 만물의 근원과 작용의 이치를 모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원리에는 음양오행의 이치와 소리의 아, 설, 순, 치, 후의 분류와 궁, 상, 각, 치, 우의 오음과 관련지었다. 또한 춘, 하, 추,冬の 사계절의 우리나라 네 철에도 관련지어 그 근본을 찾으려하였다. 이렇게 초성이 만들어진 창제원리에 대한 풀이와 중성의 모음자에 대한 생성원리를 살펴보면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을 알 수 있다.

가운데소릿자를 <훈민정음 해례>에서 풀이해놓은 원문의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 글과 같이 그 형태의 생성원리에 대해 설명되어있다.

·는 하늘을 본떠. 소리 가장 깊으니. 그러므로 둥근 풀이 총알 같으며. ‘ㅡ’ 소리는 깊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 그 모양 평평함은 땅을 본뵈으며. ‘ㅣ’는 사람이 서 있음을 본떠 그 소리 얇으니. 삼재의 이치가 이에 갖추어 졌도다. ‘ㄱ’는 하늘에서 나서 아직 닫겨 있으니. 모양은 하늘의 둥글름에 땅의 평평함이 어울린 것을 취했고. ‘ㅏ’도 하늘에서 나와 이미 열려 있으니. 사물에서 피어나 사람에서 이루어짐이라. 처음 나는 뜻으로써 둥글름을 하나로 하고. 하늘에서 나와 ‘양’이 되니 위와 밖에 놓인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ㄱ가 처음으로 하늘에서 나니 ‘천일생수’의 자리요. ㅏ가 다음에 나니 ‘천삼생목’의 자리다. ㅓ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지이생화’의 자리요. ㅕ가 그 다음이니 ‘지사생금’의 자리다. ㅗ가 하늘에서 다시 나니 ‘천칠성화’의 수요. ㅛ가 그 다음이니 ‘천구성금’의 수다. ㅛ가 땅에서 다시 나니. ‘지륙성수’의 수요. ㅜ가 그 다음이니 ‘지팔생목’의 수다.¹⁹⁾ 라고 현재 쓰이고 있는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물(ㅏ ㅠ)과 불(ㅛ ㅜ)은 아직 기에서 떠나지 못하여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 어울리는 시초이므로 오므라지고. 나무(ㅏ ㅑ)와 쇠(ㅏ ㅑ)는 음과 양의 고정된 바탕이므로 퍼진다. ·는 ‘천오생토’의 자리요. ㅡ는

19) 한글학회, 전계서, p10

‘지십성토’의 수다. |만이 홀로 자리와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은 무극의 정수와 음양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어울리어 영긴 것으로서. 본디 일정한 자리와 성수를 가지고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운데소리 속에 또한 스스로 음양. 오행. 방위의 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첫소리는 피어나 움직이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요. 끝소리는 그쳐 정하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요. 가운데소리는 첫소리의 남을 받고 끝소리의 이루는 데에 접하니 사람의 일²⁰⁾ 이라고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원문 중간 중간 첫소리와 가운데소리, 끝소리의 서로 어울리고 이루어짐에 대해 그 창제 원리를 풀이한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 음양의 원리

천지인	운동감	삼재의 이치	모음	음양
·	움직임	하늘	ㅏ ㅑ ㅓ ㅕ	양
—	고요함	땅	ㅓ ㅕ ㅗ ㅛ	음
	움직임+고요함	사람	두루 어울림	양+음

20) 한글학회, 전계서, p20

IV. 훈민정음 해례에 따른 시각표현 실험

위와 같이 <훈민정음>에서 한글 창제의 근본 원리를 여러 가지로 풀고 있다. 따라서 그 원리에 기본을 두고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활용의 예를 형태, 컬러, 질감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제시해 본다.

본 작품 실험논문에서는 원문에서 쓰이는 훈민정음의 28자 중 옛 자음은 작품 실험 과정에서 제외하고 컬러, 형태, 질감의 세 가지 디자인의 구성 원리에 적용하여 새로운 그래픽 작업을 시도하였다.

컬러, 형태, 질감으로 표현 될 수 있는 원리의 요소들을 최대한 각각의 내용에 표로 정리 하였는데, 이 내용은 중복이 되기도 한다.

1. 작업방법

어도브 일러스트레이터와 어도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합성과 필터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2. 표현분류

1) 형태로 표현

어금닛 소릿자 ‘ㄱ ㅋ ㆁ’에서 ‘ㄱ’바탕 ‘ㅋ’은 성히 자람 ‘ㆁ’은 나이 들어 씩씩하게 자람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풀이하고 있다. 이는 또한 형태의 변화나 무게의 변화로도 표현 가능하고, 소리의 높고 낮음, 소리의 크고 작음, 소리가 나는 구강구조의 자

리, 기본 소릿자부터 각각의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들에 대입시켜본 각각 자음과 모음의 기본 형태와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리들 중 형태로 표현 되어 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원문에서 형태로 표현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를 표현한 형태의 시각적 변화를 간단한 예로 표현해 본다.



<그림 2> ‘ㄱ’의 가획의 원리

위의 예시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제시이며 형태의 기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풀이한 창제원리 중 형태로 표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태로 표현 가능한 요소들을 원문의 창제 원리 풀이에서 알 수 있으며, 그 기본 소릿자에 대한 설명과 다른 나머지 소릿자의 창제 원리에서 자음과 모음의 각각의 소릿자에 대한 형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 소릿자는 ‘ㄱ, ㄴ, ㅁ, ㅂ, ㅇ’으로 ‘ㄱ’은 어금닛 소릿자로 우둘두둘하고 길다한다. ‘ㄴ’은 혀 소릿자로 날카로우며 움직이니 굴러 퍼지며, 날뻐다고 한다. ‘ㅁ’은 입술 소릿자로 모나며 어울리고 머금고 넓음은 만물을 풀어서 간직하는 형상으로 넓고 큼을 나타낸다고 한다. ‘ㅂ’은 잇 소릿자로 단단하며 꿍으니 부스러지며 걸린다고 하고, 마지막 기본자인 ‘ㅇ’에 대해서는 목구멍 소릿자로 투명하고 밝으며, 잘 흐른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에 형태로 표현되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창제 원리들 또한 이러한 풀이의 내용에서 각각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음양오행의 창제 원리 중 네 철, 오성, 오행의 이치, 동서남북의 방위에 대입되어지는 소릿자 등의 내용들이 서로 짝을 이룰 수 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 기본소릿자의 형태 풀이

형태의 풀이	기본소릿자	방향	오행	철
우들두들함, 길다	ㄱ	동	나무	봄
날카로우며 움직이니 굴러퍼지며, 날땀.	ㄴ	남	불	여름
모나며 어울림, 머금고 넓고 큼은 만물을 풀어 간직함	ㄹ	중앙	쇠	가을
단단하고 끊으니 부스러지며 걸림	ㅅ	서	흙	늦은 여름
투명하고 밝아 잘흐름	ㅇ	북	물	겨울

형태와 연결되어지는 다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표 9 > 기본소릿자의 음양오행

기본소릿자	가획의 원리	요일	음계	오음
ㄱ	ㄱ - ㄱ	목	각	아
ㄴ	ㄴ - ㄴ - ㄴ	화	치	설
ㄹ	ㄹ - ㄹ - ㄹ	토	궁	순
ㅅ	ㅅ - ㅅ - ㅅ - ㅅ	금	상	치
ㅇ	ㅇ	수	우	후

2) 컬러로 표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풀이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례에서 언급한 컬러를 대입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음양오행의 네 철, 오성, 오행의 이

치, 동서남북의 방위 등 서로 연관 지어 짝을 이룬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각각의 이치들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풀이들을 컬러에 대입하여 그 채도와 명도 등의 차이를 나타 낼 수 있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기본 소릿자의 컬러가 짝이 되며, 그에 해당되는 컬러도 음, 양의 기운과 발성 기관의 자리에서 연상되어 지는 기운을 창제 원리에서 풀이 하였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컬러의 음양오행

컬러	방향	오성	오행	철
파랑(Blue)	동	木	나무	봄
빨강(Red)	남	火	불	여름
황색(Yellowish red)	중앙	土	쇠	가을
백색(White)	서	金	흙	늦은 여름
검정(Black)	북	水	물	겨울

컬러와 연결되어지는 다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표 11> 기본소릿자의 컬러

컬러	기본소릿자	음, 양	체내 기관
파랑(Blue)	ㄱ	따뜻한 기운	간장, 쓸개
빨강(Red)	ㄴ	뜨거운 기운	심장, 소장
황색(Yellowish red)	ㄷ	평상적 기운	비장, 위장
백색(White)	ㄹ	서늘한 기운	폐장, 대장
검정(Black)	ㅇ	차가운 기운	신장, 방광

3) 질감으로 표현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을 살펴보면, 자음과 모음 각각의 형태와 컬러에 대해 풀이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각각의 소릿자의 발음되는 소리와 형태의 설명에 대한 연상으로 말을 할 때 소리되어지는 말의 느낌에서도 질감의 표현을 알 수 있다. 원문의 풀이를 살펴보면 첫소리로 어떤 것은 무겁기도 하며 가볍기도 하고, 이러한 것은 단단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소리의 맑고 흐림이 있고, 소리의 기본자는 ‘ㄱ’자는 ‘전청’으로 맑은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획의 추가로 인해 파생되는 ‘ㅋ’은 ‘ㄱ’보다 거센소리로 ‘전청’보다는 거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음과 모음의 원리들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형태, 컬러와 같이 질감으로도 그 말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풀이를 다음과 같이 기호로 간단히 표현해 본다.

<표 12> 초성, 중성, 종성의 변화 요소

초성, 중성, 종성	자, 모음	변화 요소	
첫소리, 끝소리	자음	■ - 무거움 □ - 가벼움	目 - 맑음 罽 - 탁함
가운뎃소리	모음	ㄱ - 깊음 ㄴ - 낮음	○ - 오므라짐 ◯ - 퍼짐

위의 예시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제시이며 형태의 기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표 13> 기본소릿자의 소리변화

기본소릿자	가획의 원리	소리의 변화
ㄱ	ㅋ - ㄲ	거센소리에서 된소리로 변화됨 ㄱ, ㄴ, ㄷ, ㅈ, ㅊ - 전청 ㅋ, ㆁ, ㆁ, ㆁ - 차청
ㄴ	ㄷ - ㄸ - ㄹ	

口	ㅂ - 표 - 뽀	ㄱ, ㄲ, ㅃ, ㅄ, ㅅ - 전탁 ㄴ, ㄷ, ㅇ, ㄹ - 불청불탁
入	ㅈ - ㅊ - ㅆ - ㅈ	
○	ㅎ	

소릿자의 가획의 추가로 인해 전달되어지는 말소리의 세기가 달라지고 그 형태가 변화됨을 위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알 수 있다.

4.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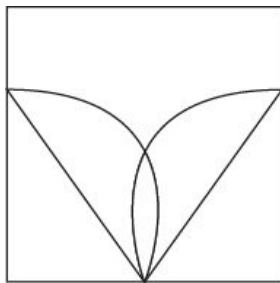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우리네 말글인 한글에 대해 그 창제원리를 자세히 풀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시각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문의 내용에서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내용을 소리의 근본 오행, 소리의 맑고 흐림, 소리의 여리고 썸, 소리의 느리고 빠름, 소리의 첫. 가운데. 끝소리 어울림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또한 구분한 5가지의 내용을 시각 구성 요소인 형태, 컬러, 질감 세 가지로 표현해 보려 하였다.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현재 쓰이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말글인 한글에 대해 글자를 읽음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각화의 틀을 벗어나 한글의 다양한 디자인적 실험으로 한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디자인적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글자로는 읽혀지지 않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창제원리인 음양오행의 이치들을 소리를 통해 듣고 느껴지는 느낌과 한글의 창제원리를 풀이해 놓은 내용을 디자인의 그 기본원리로 활용하여 형태와 컬러 질감의 세 가지 디자인 구성요소를 시각적으로 활용하여 이미지로써 보여 지는 한글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각적 다양화가 활발한 현 시대에 새로운 실험을 통해 한글이 풍부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은 실험 작업을 통해 표현 할 수 있다. 실

험에 활용되는 요소로는 대중화 된 시와 동요, 명언, 문장, 단어 등으로 각각의 실험 문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위의 5가지 창제원리와 디자인의 3가지 구성 원리들을 서로 짝이 되는 것을 하나의 구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각각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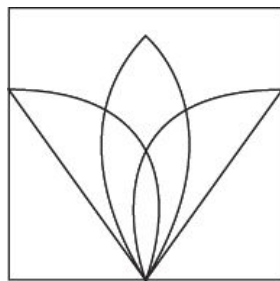
실험1) 시 ‘서시’의 형태 변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풀이하듯 한글을 만든 이치에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음 14자와 모음 10자 자음의 획 추가로 인해 파생되어진 된소리 ‘ㄱ, ㆁ, ㅃ, ㅅ, ㅆ’의 5글자까지 이렇게 총 29자를 원문의 창제원리에서 음양오행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형태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소릿자 각각을 네모꼴 안에 표현하였으며, 이는 초성, 중성, 종성을 나타내듯이 네모꼴이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모꼴 여러 개가 겹쳐서 표현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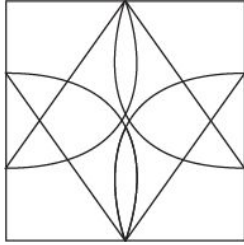
‘ㄱ’은 어긋지고 기니 나무에 해당된다 하며 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실하고, 마치 나무가 물에서 난 모양이며,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으로 여린 짝과 같다.

<그림3> ‘ㄱ’자를 형태로 표현



‘ㅋ’는 ‘ㄱ’자의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이 하나 추가되며 나무가 성희 자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ㄱ’의 모양이 무성해 지는 것과 같다.

<그림4> ‘ㅋ’자를 형태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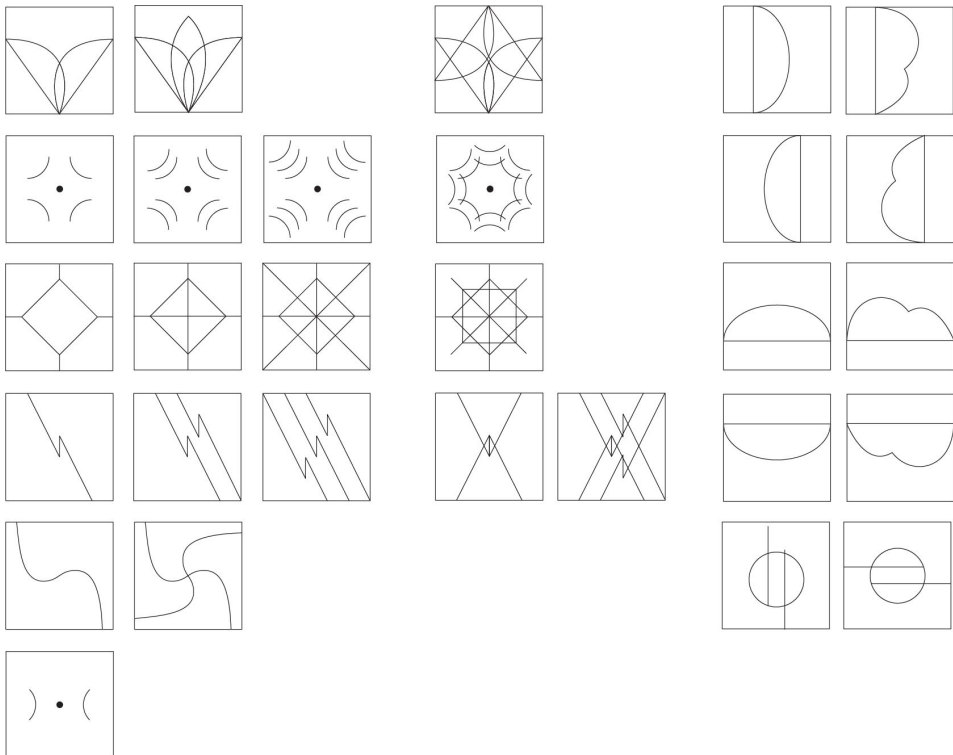


‘ㄱ’은 나무가 나이가 들어 썩썩함이라고 표현하였다. ‘ㄱ’, ‘ㅋ’, ‘ㄲ’은 모두 어금닛 소릿자에서 본떴다고 한다.

<그림5> ‘ㄱ’자를 형태로 표현

위와 같이 ‘ㄱ’자의 형태를 <훈민정음 해례본>의 창제 원리에서 풀이한 것을 바탕으로 한 형태로 표현하려 하였다. 나머지 소릿자도 각각의 기본 소릿자의 원문에서의 풀이를 바탕으로 그 파생원리에 입각하여 같은 원리로 형태를 표현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표현을 한글의 자음과 모음 된소리의 형태로 변형시킨 것은 다음의 그림과 같으며, 이러한 낱자를 시에 대입시켜 표현할 수 있다.

전체 한글의 낱자를 형태로 변형시킨 실험표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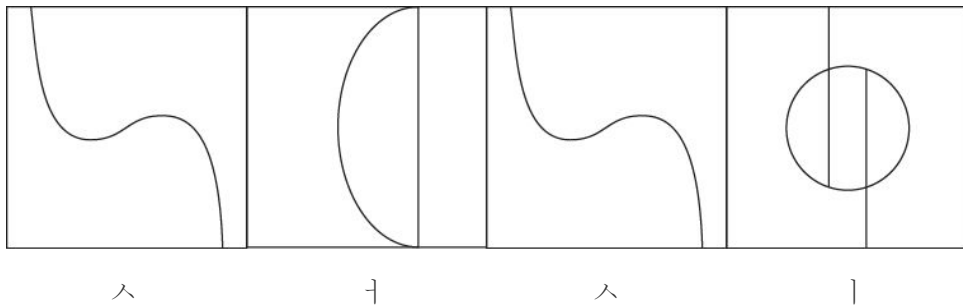
<그림6> 한글 모든 낱자의 형태 변화

위와 같은 형태의 변형을 각 낱자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배열로 정리된다.

ㄱ	ㅋ	ㄲ	ㄷ	ㅌ
ㄴ	ㄸ	ㅌ	ㄹ	ㄺ
ㄴ	ㄸ	ㅌ	ㄹ	ㄺ
ㄴ	ㄸ	ㅌ	ㄹ	ㄺ
ㅇ	ㅎ		ㅡ	ㅣ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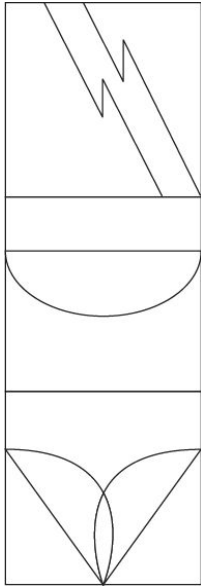
<그림7> 한글 낱자 배열

위와 같은 배열에 대입하여 각 낱자의 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를 ‘운동주’시인의 ‘서시’라는 시로 글자의 낱자에 실험 요소를 대입하여 변형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먼저 제목인 ‘서시’를 형태로 표현하면 첫 단어인 ‘서’의 첫 소릿자 ‘ㅅ’의 낱자 형태와 모음 ‘ㅣ’를 대입하고 그 다음 글자인 ‘시’의 ‘ㅅ’과 종성인 ‘ㅣ’를 한글 ‘서시’대신 형태로 변형한 낱자에 대입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8> 한글 ‘서시’를 형태로 표현

‘서시’의 글자를 낱자를 각각 형태변형해서 대입하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예로 초성, 중성이 가로로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세로로 ‘죽’자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초성음 ‘ㅈ’과 중성음 ‘ㅊ’와 ‘ㄱ’을 그림과 같은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ㅈ’은 ‘ㅅ’의 기본자에서 가획의 원리로 파생된 자음이며 잇소리자인 ‘ㅅ’은 단단하며 끊으니 부스러지고 걸린다하여 그림과 같이 나타낸다. 중성음 ‘ㅊ’는 음의 기운으로 단단함과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는 땅의 이치에서 표현된다. 종성음인 ‘ㄱ’은 형태 변화의 설명에서와 같다.

<그림9> 한글 ‘죽’을 형태로 표현

다음 시는 한글을 형태의 이미지로 변형하려 시도한 ‘윤동주’시인의 ‘서시’이다.

<윤동주 - 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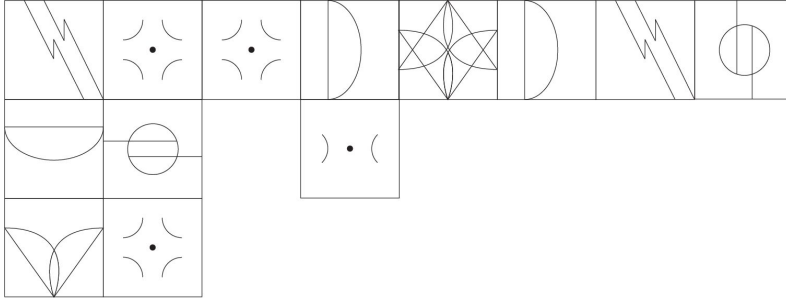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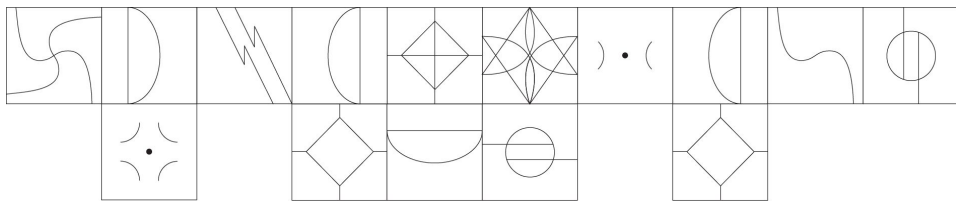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시인의 ‘서시’에서 초성, 중성, 종성의 여러 가지 낱자의 글자 표현을 시의 몇 소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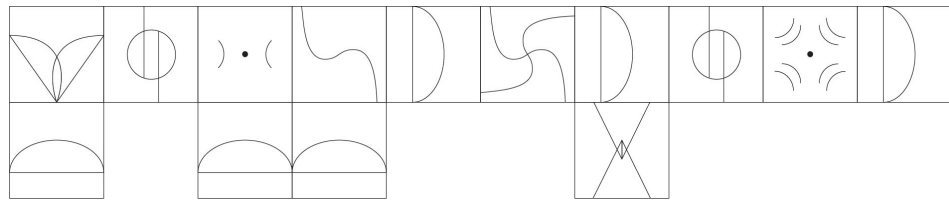
<그림10> ‘죽는 날까지’의 형태변화

위의 표현은 ‘죽는 날까지’이다.



<그림11> ‘한 점 부끄럼이’의 형태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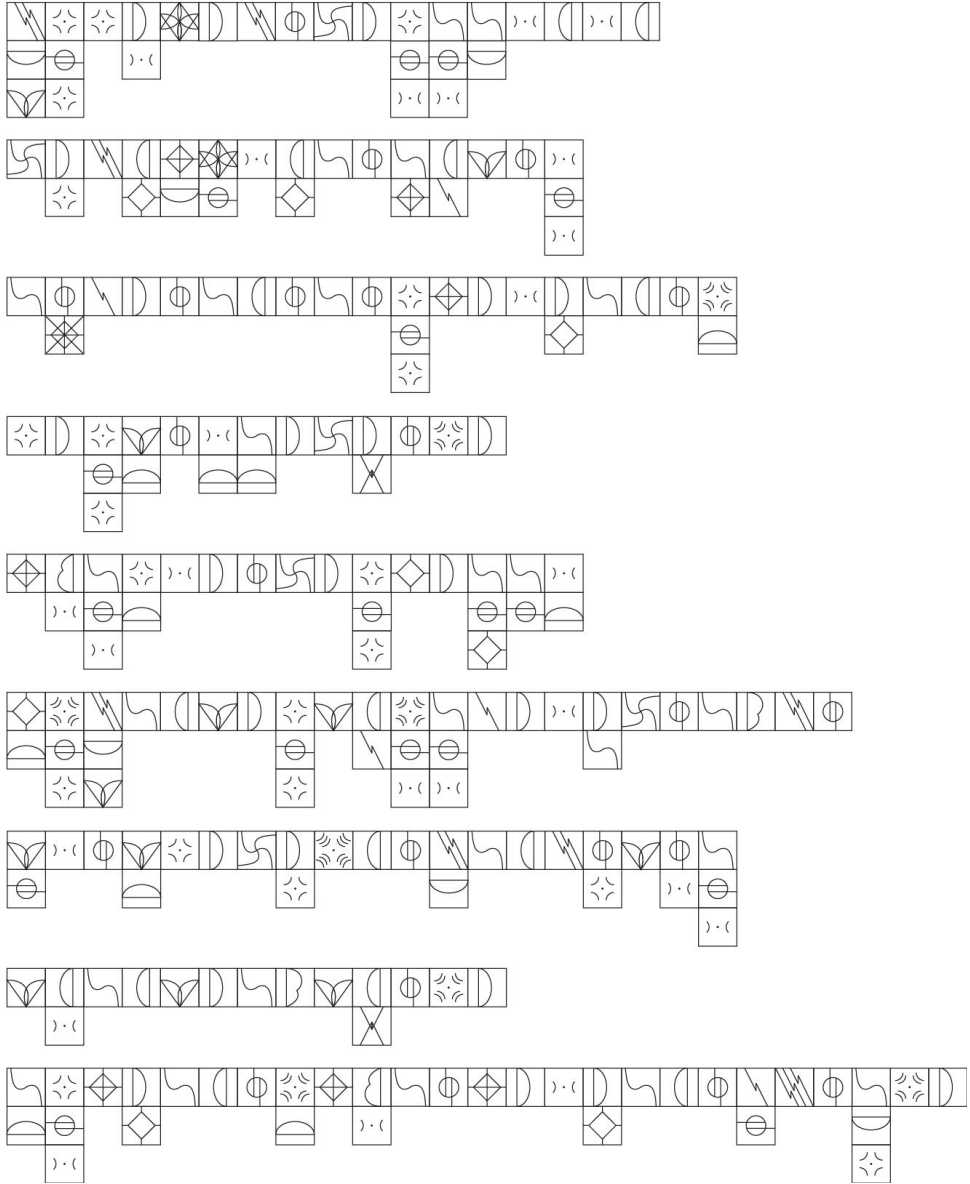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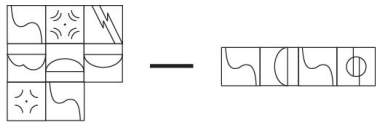
위의 표현은 ‘한 점 부끄럼이’를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2> ‘괴로워했다’의 형태변화

위의 표현은 ‘괴로워했다’를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변형을 시 전체로 나타내보면 다음 <그림12>와 같이 기본적인 배열로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배열의 크기 조절이라든지 공간의 일률적이지 않은 표현으로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다음은 ‘윤동주’시인의 ‘서시’ 전체를 표현한 것으로 위의 한글로 표현된 시와 배열의 짝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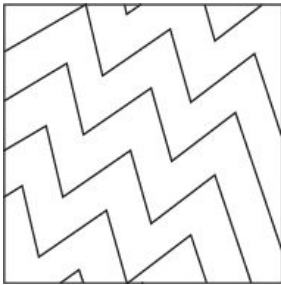


<그림13> 시 '서시'를 형태로 표현

위와 같은 표현은 시를 읽을 때 한글이 아닌 형태의 이미지로 읽힐 때의 시각화를 시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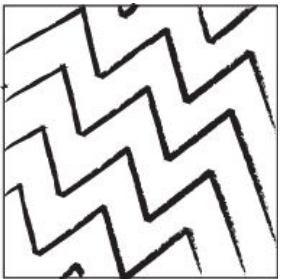
실험2) 시 ‘귀천’의 질감 변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풀이하듯 한글은 또한 형태, 컬러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감으로도 풀이를 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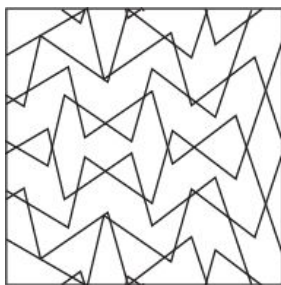
왼쪽의 <그림14>은 ‘기’을 질감으로 표현한 것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기’을 어금닛 소릿자이므로 우둘우둘하고 길며, 나무를 뜻한다고 한다. ‘기’자의 형태를 정할 때 풀이하였던 설명과 그 내용을 같이 한다.

<그림14> ‘기’자를 질감으로 표현



‘키’자는 위의 <그림15>과 그 형태를 같이 하나 ‘기’자의 가획의 원리로 파생된 ‘키’자는 ‘기’의 맑은 소리가 아닌 탁한 소리를 내므로 질감의 표현에 있어, 거친 표현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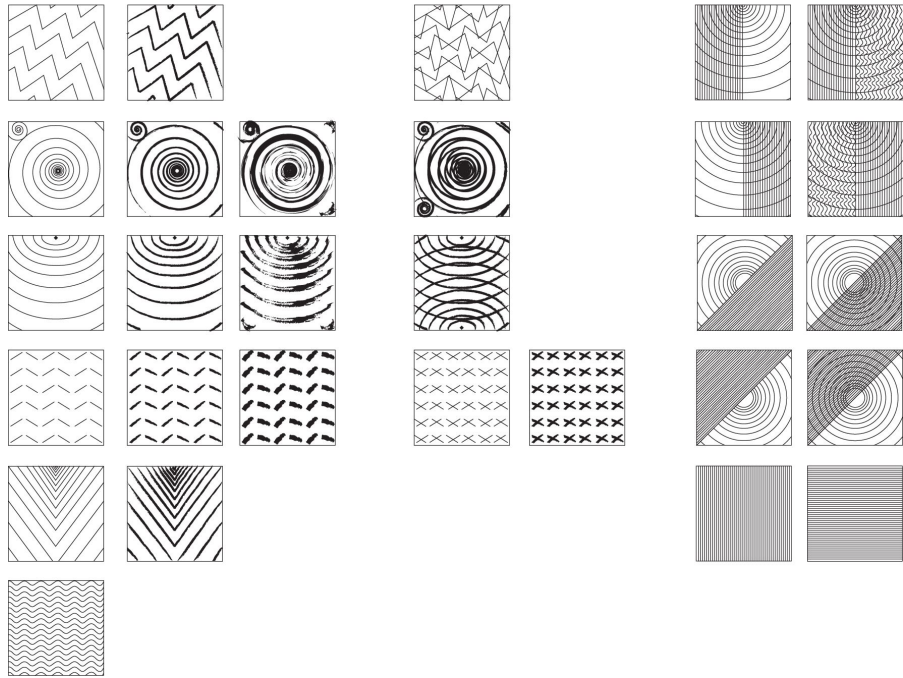
<그림15> ‘키’자를 질감으로 표현



‘끼’자는 위의 ‘기’자의 더해짐으로 거센소리를 나타내는데 이를 ‘기’의 질감 표현만을 활용하여 상하를 반전시키고 겹치어 표현하였다.

<그림16> ‘끼’자를 질감으로 표현

이와 같은 질감의 표현으로 위의 내용 또한 그 원리를 <훈민정음>에
서 풀이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 된소리의 질감 표현을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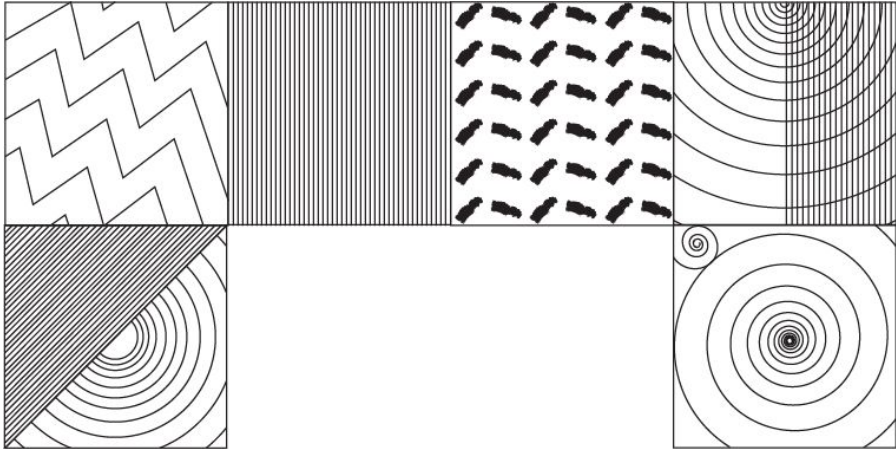
<그림17> 한글 모든 낱자의 형태 표현

ㄱ	ㅋ	ㄲ	ㆁ	ㄷ	ㅌ
ㄴ	ㄷ	ㅌ	ㄷ	ㄷ	ㅌ
ㄹ	ㄹ	ㅂ	ㅂ	ㄱ	ㅋ
ㅅ	ㅅ	ㅆ	ㅆ	ㅈ	ㅉ
ㅇ	ㅇ			ㅡ	ㅣ
ㅡ					

<그림18> 한글 낱자 배열

앞의 그림 2개를 보면 글자의 낱자를 질감으로 표현한 작업과 짝지을
수 있다. 이를 또한 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실험1’의 소재와는 다른

시를 선택하여 표현한다. 실험되어질 시는 ‘천상병’시인의 ‘귀천’을 소재로 소리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순서로 우선 ‘천상병’시인의 시 제목을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9> 한글 ‘귀천’을 질감으로 표현

위의 그림은 시 제목 ‘귀천’을 표현한 것이다. ‘귀’자의 초성음 ‘ㄱ’은 앞의 내용에서 설명하였으며, 중성음 ‘ㅍ’는 땅에서 나와 음의 기운이 있으며, 역시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대로 불의 작용도 한다. 네모꼴안의 위로부터 사선이 시작되는 막힘을 표현하려 하였으며, 단단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사선과 곡선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천’자는 ‘ㅈ’의 첫소리와 가운데소리 ‘ㄱ’와 끝소리 ‘ㄴ’의 조화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ㅈ’은 자음으로 ‘ㅅ’의 파생자이며, 거센소리를 나타내므로 기본자 ‘ㅅ’에서 점점 더 거친 선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ㄱ’자는 모음으로 ‘음’이 되는데, 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ㄴ’은 ‘불’에 해당되며, 소리가 구르고 날리며 굴러 퍼지고 날뛰는 것과 같다 하여 곡선의 크고 작음으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는 소재로 택한 ‘천상병’시인의 ‘귀천’ 전문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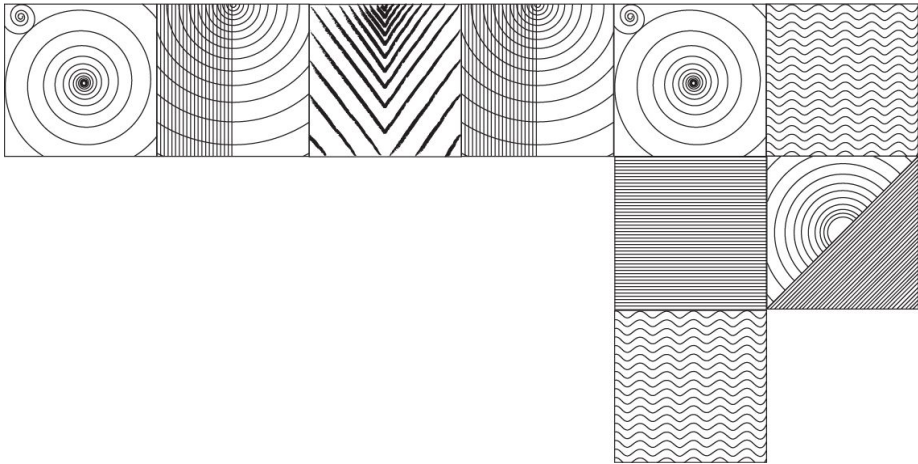
<천상병 -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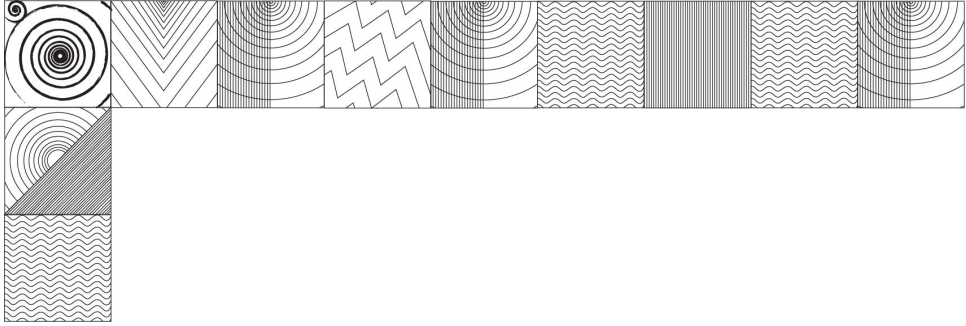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래는 ‘귀천’의 첫 소절인 ‘나 하늘로’를 질감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자 각각의 날자가 훈민정음의 원리에 따라 그 질감이 표현 된 것으로 ‘나’자에서 ‘ㄴ’은 헛 소릿자의 원리를 질감으로 표현할 것이고, ‘하’자는 목구멍소릿자 ‘ㅇ’의 파생자로 물의 투명하고 맑아 잘 흐르는 현상을 질감으로 매끄럽고 간결한 사선의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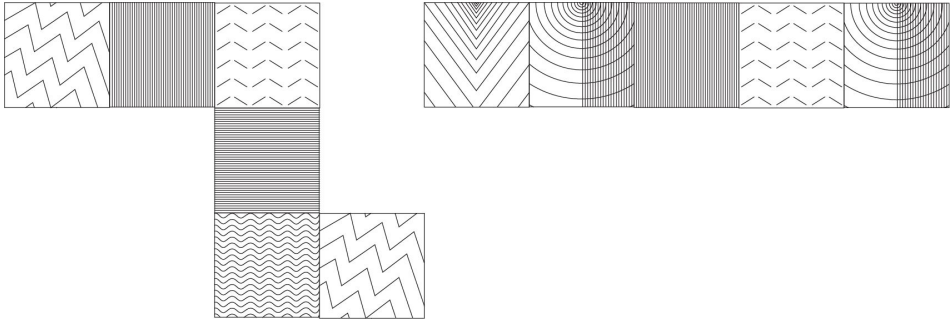


<그림20> ‘나 하늘로’를 질감으로 표현



<그림21> ‘돌아가리라’를 질감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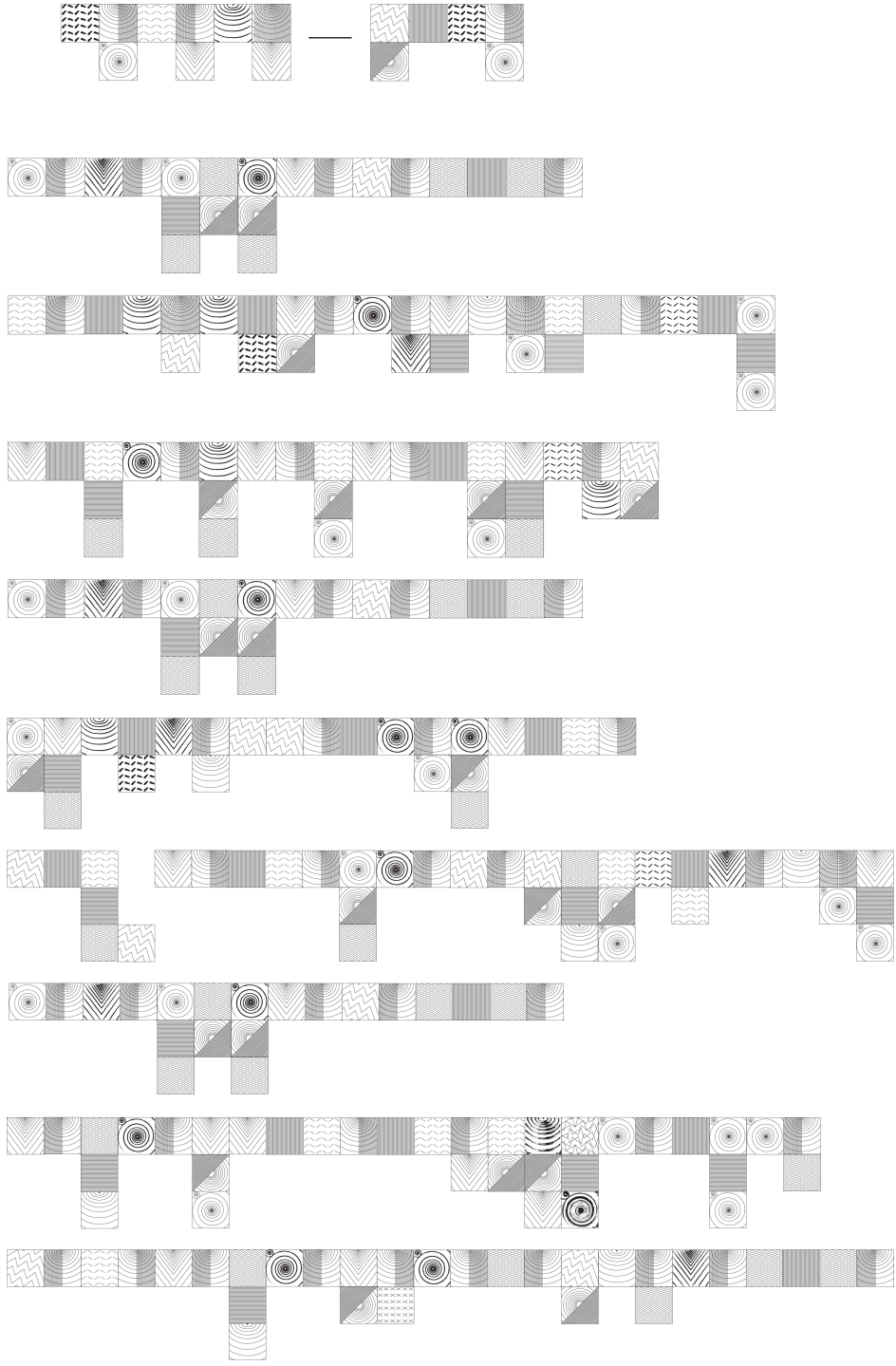
또 다른 문장을 보면 ‘돌아가리라’라고 첫 소절의 뒤를 이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22> ‘기슭에서’를 질감으로 표현

위의 그림은 시의 여러 소절 중 ‘기슭에서’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슭’자를 보면 초성과 중성 종성의 ‘ㄱ’과 ‘ㄱ’은 끝소릿자로 함께 나타내면 위의 <그림22>에서 표현한 것과 같다. 또한 ‘에’자를 보면 ‘ㅇ’자와 ‘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ㄱ’과 ‘ㄱ’을 같이 차례대로 쓰면 위의 그림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아래의 시는 이름과 제목 다음 시의 전문을 질감으로 변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림23> 시 '귀천'을 질감으로 표현

실험3) 시 ‘슬픔’의 컬러 변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풀이하듯 한글을 디자인적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컬러로 표현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컬러로 표현될 소재의 한글 내용은 ‘김용택’시인의 ‘슬픔’이다. 컬러는 우선 기본적으로 한글 날자가 음양오행에서 풀이하는 각각의 색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단순히 네모꼴로만 시각화하기 보다는 형태로 표현된 날자의 면을 조금 변형한 뒤 면으로 분할하여 그에 색을 대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먼저 음양오행에서 풀이하는 각각의 기본 소릿자에서의 색은 앞의 내용에서도 설명된바 있는데, ‘ㄱ’자인 어금닛 소릿자는 따뜻한 기운을 나타내며, 파랑색을 뜻한다고 한다. ‘ㄴ’자인 헛 소릿자는 뜨거운 기운을 뜻하며 색으로는 빨강을 나타낸다. ‘ㄹ’은 입술 소릿자로 평사적 기운과 황색의 색을 나타낸다. ‘ㅅ’자는 잇 소릿자로 서늘한 기운과 백색의 색을 나타내고, ‘ㅇ’은 목구멍 소릿자로 검정색을 뜻한다.

이러한 내용을 형태 변형의 표현에 대입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진다. ‘ㄱ’자를 색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ㄱ’자의 형태 변형의 표현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에서 설명하였다. 컬러의 변형은 ‘ㄱ’자가 나타내는 파랑색을 바탕으로 같은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여 면을 분할하였다. 따뜻한 기운을 나타낸다 하여 명도를 밝게 하려 하였다.

<그림24> ‘ㄱ’자의 컬러로 변화

다음으로는 ‘ㄱ’자의 가획의 원리로 파생된 ‘ㅋ’의 컬러 변형을 표현한다.



‘ㅋ’을 나타내는 옆의 <그림25>은 ‘ㄱ’의 거센 소리를 나타내는 자음이므로 컬러의 차이도 탁하게 표현하려 하였다. 역시 파랑 계열의 컬러로 변화를 준다.

<그림25> ‘ㅋ’자의 컬러로 변화

‘ㄱ’과 그 자음에서 파생되어진 ‘ㅋ’에 대해 컬러의 대입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ㄱ’의 된소리를 나타내는 ‘ㄲ’을 컬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ㄲ’을 나타내는 옆의 <그림26>은 ‘ㄱ’의 같은 발성기관의 자리에서 소리가 좀 더 무겁게 나는 것을 표현하려 하였다. 같은 컬러 계열인 파랑에서 채도를 낮추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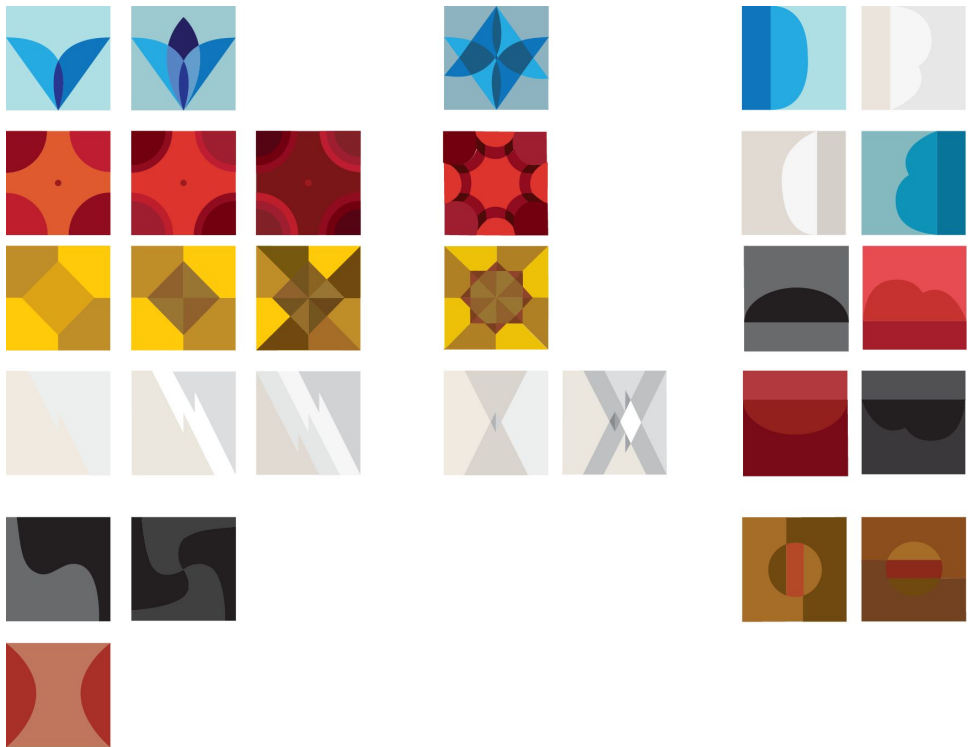
<그림26> ‘ㄲ’자의 컬러로 변화

이와 같이 ‘ㄱ’자의 컬러 변형에 대해 표현한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한글 낱자 또한 그 낱자의 컬러로 표현되어진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컬러를 대입시켜 표현 하였다. 나머지 낱자에 대한 컬러표현은 다음과 같다.

ㄱ	ㅋ	ㄲ	ㄴ	ㄷ
ㄴ	ㄸ	ㄹ	ㄷ	ㄹ
ㄷ	ㅌ	ㅍ	ㅍ	ㅍ
ㅈ	ㅊ	ㅊ	ㅈ	ㅈ
ㅊ	ㅊ	ㅈ	ㅈ	ㅈ
ㅇ	ㅇ	ㅇ	ㅇ	ㅇ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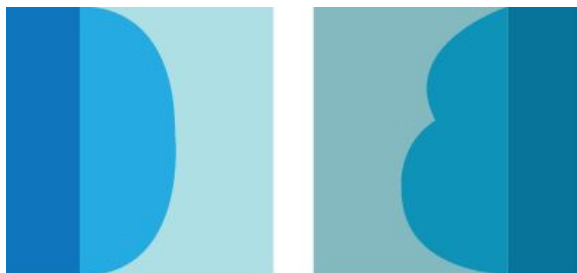
자음과 자음의 된소릿자와 모음을 다음 <그림27>에서 표현 되는 컬러의 짝과 대입시킬 수있다.

<그림27> 한글 낱자 배열



<그림28> 한글 모든 낱자의 컬러 표현

위의 표현과 같이 한글 낱자의 각각의 색을 대입하여 된소리 자음은 컬러의 채도를 좀 더 낮추고 모음의 경우에는 채도와 명도의 차이로 음양의 차이를 나타내려 하였다. 여기서 모음의 컬러 변형의 풀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옆의 <그림29>를 차례대로 ‘ㅏ’, ‘ㅑ’로 표현하였다.

<그림29> ‘ㅏ’, ‘ㅑ’의 컬러표현

위의 <그림29>의 경우는<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풀이한 내용 중에

‘나, ㄱ’은 나무를 나타내며, 음, 양 중에 양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음양오행에서 풀이한 컬러로는 파랑 계열의 컬러로 대입하여 표현하였다. ‘나’, ‘ㄱ’의 파생 순으로 채도가 낮아지지 않고, 풀이에 입각하여 컬러를 대입하였다.

컬러로 표현 될 시 ‘슬픔’은 시의 내용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조용하고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컬러의 맑고 흐림과도 연관 지어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할 문장으로는 ‘김용택’시인의 ‘슬픔’이라는 시를 표현하였으며,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용택 - 슬픔>

외판곳
 집이 없었다
 짧은 겨울날이
 침침했다
 어디 울 곳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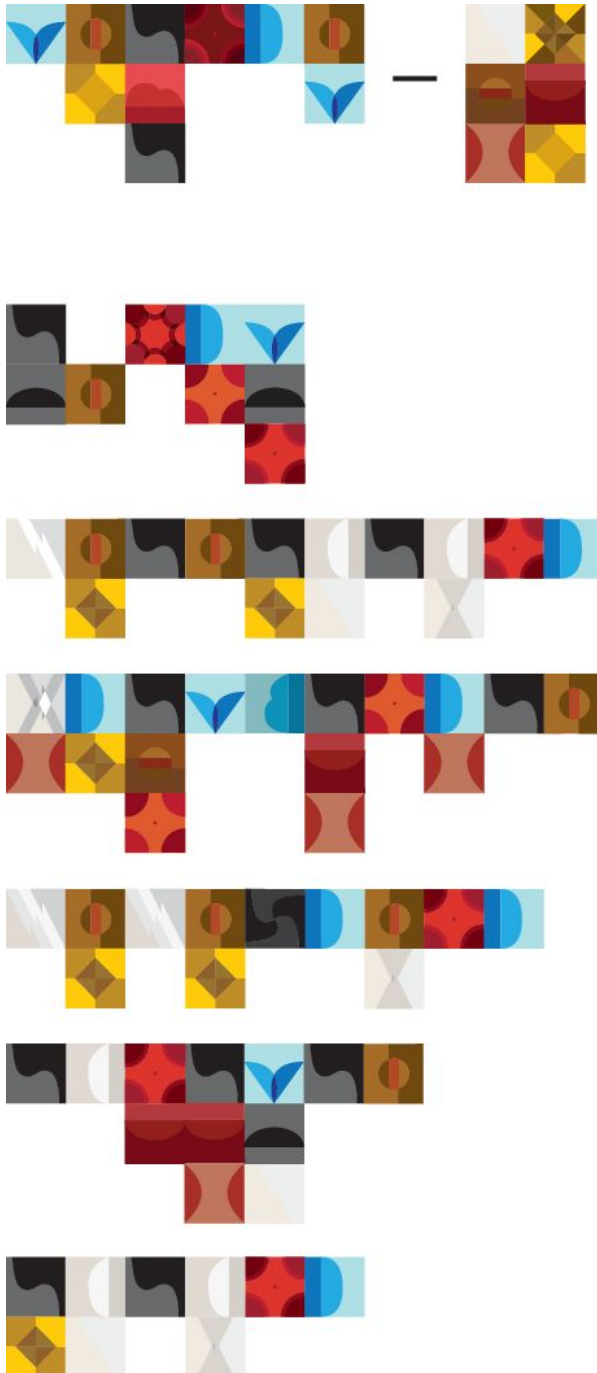
위의 시의 제목을 컬러에 대입시킨 날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슬픔’을 ‘ㅅ’의 초성과 ‘ㅡ’의 중성과 ‘ㄱ’의 중성이 이루어져 있다. ‘ㅅ’은 잇소리자로 서늘한 기운과 음양의 색으로는 백색에 해당된다고 한다. ‘ㄱ’은 반헛소리를 나타내며 ‘ㅍ’은 ‘ㅁ’의 황색에서 파생된 거친 소리이므로 채도가 낮아졌다.

<그림30> ‘슬픔’의 컬러표현

다음의 실험 작업은 ‘김용택’시인의 ‘슬픔’을 컬러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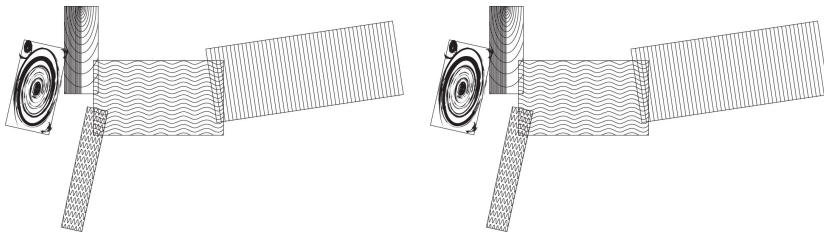


<그림31> 시 ‘슬픔’을 컬러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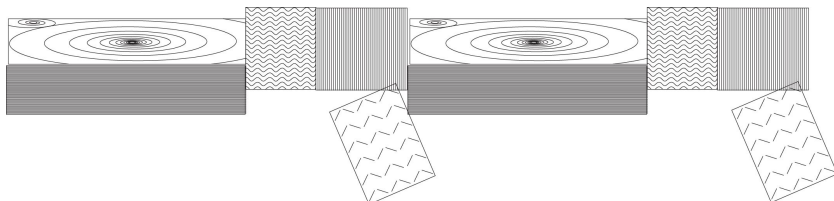
실험4) 소리의 속도와 음량 변화

<훈민정음 해례본>의 풀이에서 한글이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소리의 고저와 느리고 빠른 차이를 설명하며 음양오행의 이치에도 또한 짝을 이름을 풀이하고 있는데, 소리의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성조의 구분으로도 그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평성은 낮은 음의 소리가 평안하고 온화하게 기복이 없이 잔잔히 나는 소리를 말하며, 상성은 평성의 낮은 음에서 시작하여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거성은 높이 올라간 소리가 웅장하게 나는 소리를 말하고, 입성은 끝소리가 급히 끝맺어지는 소리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각적 실험을 하기 위해 소재로는 우선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기로 한다. 실험되어질 소재로는 ‘빨리 빨리’와 ‘느릿느릿’을 변형의 소재로 기본적인 실험으로 표현해 본다. ‘빨리 빨리’는 종성이 평성, 상성, 거성에 속하며, ‘느릿느릿’은 ‘ㅅ’의 끝마무리와 동시에 봉쇄되는 음으로 입성에 속한다. 이 두 글자를 형태와 질감, 공간과 높이, 고저로 나타내 본다.



<그림32> ‘빨리 빨리’의 속도 표현



<그림33> ‘느릿 느릿’의 속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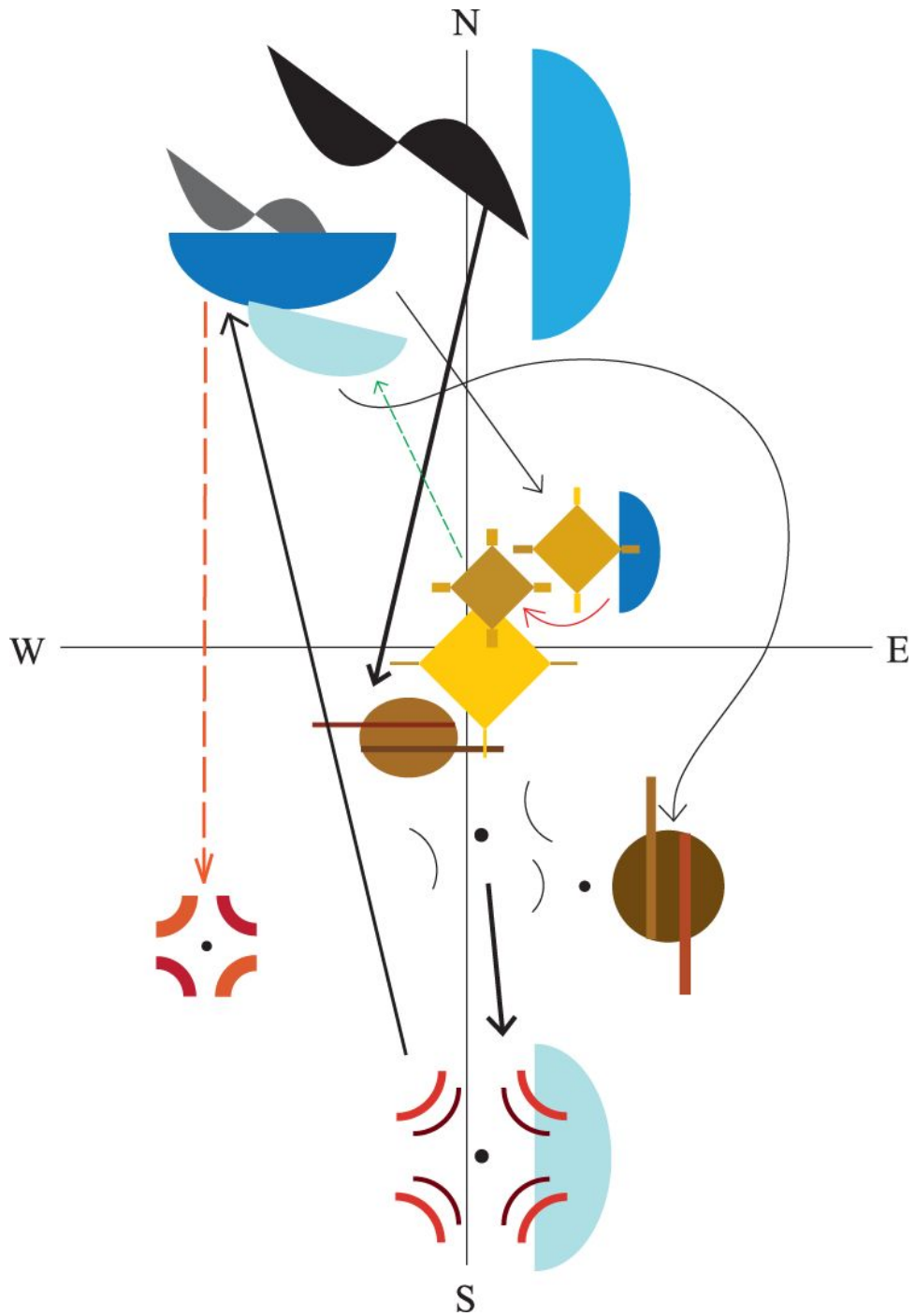
위의 실험에서 표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빨리 빨리’에서 초성인 ‘ㅃ’는 ‘ㅂ’의 거센소리로 입성에 속한다 할 수 있으므로 소리를 내었을 때의 느낌이 중성이 입성이 아니지만 면의 대비로 구분하였을 때는 빠르고 촉박함을 중성의 글자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으로 표현 하였다. 그러므로 음의 높낮이와 형태의 공간 비율 차이로도 말소리의 느리고 빠름의 형태를 표현 할 수 있다.

실험5) 기본 형태소의 어울림 변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한글 창제의 모든 이치를 음양오행에 있다하며, 동, 서, 남, 북의 방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철과도 그 짝을 이룬다고 한다.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되는 날자들과도 그 조화를 이룬다 하고 이 모든 이치들이 두루 어울려 만물의 이치를 알게 한다고 <훈민정음>원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창제 원리들에 대해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들의 내용을 켜러, 형태와 음양오행의 요소들과 짝을 이루어 표현하였는데, 간단히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문구를 소재로 활용하였다. ‘아’자의 첫소리자인 ‘ㅇ’의 음양오행의 켜러와 형태로 변화시킨 네모꼴 실험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동, 서, 남, 북의 네 방위에 해당되는 위치를 잡고 좀 더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네모 틀을 빼고 그 형태로만 표현하였다. 읽히지는 않지만 앞의 실험에서처럼 내용 그대로의 문구를 차례대로 표현하지 않고 4방위의 위치마다 그 기본 날자의 위치가 다르므로 화살표를 이용하여 일직선상에 나열하듯 표현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또한 글자 ‘운’자 같은 경우 ‘ㅇ’과 ‘ㄴ’의 4방위에서 위치가 따로 떨어져 놓이는 것을 ‘점선’으로 연결시켰으며, 글자가 읽히는 순서를 가리키기 위해 ‘실선’으로 그 글자들을 각각 연결 시켰다. ‘아름다운 마무리’의 글자를 위의 실험들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그림34> ‘아름다운 마무리’를 표현

위와 같은 실험들을 통하여 한글을 글자의 이미지가 아닌 컬러, 질감, 형태 등의 다른 시각화의 표현으로 한글의 글자 자체로서의 그 우수함을 알릴 수는 없으나, 그보다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가는 한글의 기본 창제 원리를 세종대왕이 직접 남기신 <훈민정음 해례본>의 자세한 풀이를 보면 한글을 창제함에 있어 모든 원리의 이치를 음양오행을 통해 그 뜻이 통한다 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태의 조화와 컬러의 조화 또한 질감으로 느껴지는 조화도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 실험의 시도를 하기위해 그 바탕의 근본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자세하게 풀이되어져 있는 창제원리에 입각하여 컬러, 질감, 형태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작업을 시도하려 하였다.

V. 결론

현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점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이다. 한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함과 독창성에 대해 해외의 여러 석학들에 의해 극찬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런 우리 말글인 한글에 대해 자긍심과 깊은 관심으로 더욱 다양한 계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때 한글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기에 본 실험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실험 연구에서는 기존의 글자로서의 한글 형태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글로의 접근에 초점을 두었으며, 한글의 설명서라 할 수 있는 한글 창제서 <훈민정음 해례>에서 그 표현의 근거를 찾았다. 한글은 그 디자인자체로도 매우 창의적이지만 창제 원리에 입각하여 디자인적 구성요소인 형태, 컬러, 질감으로의 다양한 실험은 한글 표현의 색다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이너의 감성에 의한 창의적 발상도 중요하지만 창제부터 이미 담고 있는 한글 안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찾아 시각화시키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 김명호, 『한글을 만든 원리』, 학고재, 2005
김영욱, 『한글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 루텐스, 2007
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1998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한글의 새로운 시도. mind 4.0』,
안그래픽스, 1999
한글글꼴 연구회, 『가나다라1』, 2006
한글학회,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 한글학회, 1985

[국외 단행본]

- Thomas Bruggisser, Michel Fries, 『Super, Welcome to Graphic
Wonderland』, Die Gestalten Verlag GmbH, Berlin, 2003
Wolfgang Weingart, 『Typo Graphy』, 1998
Robert Klanten, Sven Ehmann, Birga Meyer, 『NeoGeo A New edge
to Abstraction』, Die Gestalten Verlag, Berlin, 2007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

- 김진평, 「한글 로고타입의 기초적 조형 요소에 관한 연구」 한글조형연
구, 김진평교수 추모 논문집
이지예, 「디지털 시대의 북아트 작업의 의미와 그 실험」, 한성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장효진, 「글자의 비언어적 시각표현을 통한 타이포그래피의 영역 확장
가능성과 그 의미」, 한성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한재준, 「한글의 디자인 철학과 원리」, 555돌 한글날 기념 글꼴 학술
대회 논문집, 2001

[인터넷]

<http://blog.naver.com/nobopark>

박노보, 신상대, 이욱자. 동아시아 다문화교류회 외국어교재 개발팀, (주)네
오브레인, 2005

<http://ko.wikipedia.org/wiki>

<http://urimal.cs.pusan.ac.kr>

<http://enc.daum.net/dic100>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lid=3&dir_id=30610&eid=kLyfKo9l+7as1
sOBxfQzfajgtbPEN8/P&qb=scMgu/MgsKIguq/EoSDEoSC/7CC6r7HD&pid=f
gbsNwoi5TNssvAcf4Zsss--083564&sid=STFCAvUEMUkAACrrhog](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lid=3&dir_id=30610&eid=kLyfKo9l+7as1sOBxfQzfajgtbPEN8/P&qb=scMgu/MgsKIguq/EoSDEoSC/7CC6r7HD&pid=f
gbsNwoi5TNssvAcf4Zsss--083564&sid=STFCAvUEMUkAACrrhog)

ABSTRACT

The Visual Expression Experi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Korean script

Lee, Geum Ju
Major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t. of Media Desig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Langu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unication means in our human societies. As we know, there are lots of languages all over the world, and English and Chinese may be used most frequently and extensively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But as a new kind of quality script, hangul (Korean script), has begun to be accepted and be given high praises by many linguistic scholars of the world. Obviously, our world is changing rapidly everyday, so the speed or efficiency of information arrangement will play an vital role on the strength of the country competitiveness. Under such circumstances, language, as the key means of information delivery, is so important that should not be ignored. While, among the various kinds of languages, the superiority of hangul, the scripts of Korean people, makes the natives proud in the world.

Hunmin jeong-eum is the manuscript revealing the Hangul

creation principles. This document explains the design of the consonant letters according to articulatory phonetics and the vowel lett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and vowel harmony. If it can be assumed that hangul is the unique script created by the human, Hunmin jeong-eum hence could be viewed as the unique document which can explain creation process of such scripts.

Hunmin Jeong-eum was designed by Sejong the Great. It can be said that Hunminjeongeum is the result of complex of design created King Sejong the Great, a kind of pursue what we have lived for, moreover, it has had close relationship with our life. Futhermore, the design, combined human with nature, will keep its value permanently no matter how long the times go. Thus, we can say that the script design in Hunmin jeong-eum, based on the combination of nature principles and human philosophy of equaity, is one of the best creations of design and hasdesign value highly. However, in the writer's opinion, we couldn't only content with foreign scholars' acknowledgement of superiority of Korean,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we should search for new proposals through various experiments to make our people take much more interest in hangul.

This paper will take a look at the basic formative principles in Hunmin Jeong-eum in details, which even the native Koreans rare know about, and then try to find out various ways of experiment in Korean, using principles of composition of the authentic text.

Through this experiment, the writer got rid of visual study of characters and styles of letters. But the writer studied the principles of composition of Hangul in Hunminjeongeum Haerye . There are five basic patterns of sound, clarity and obscurity of

sound, strongness and weakness of sound, the form and harmony of initial, medial, and final sound, and finally the speed of sound. Using them, the writer tried to make the fresh approach of study in the new aspect of view with color, form, visual feeling of the basic facts of design.

When we are proud of Hangeul ourselves—our mother tongue, we can spread the superiority of the Korean script and advance our language culture to beco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Now, it is the time that Hangeul has been required to develop in diverse fields, and this age we live in is the age of visualization in sensitivity, so experiments of expression using Hangeul as diversity of design should be enhanced .

